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鍵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新年과 我等의 主張 (五)

朝鮮特殊文化問題

一

現下 우리 社會에서는 文化的事業 乃至 努力에 對하야 種種의 誤解가 流布되고 잇스니 첫재 實生活과 文化의 關係를 넘어나 機械的으로 생각하야 반듯이 實生活이 潤澤한 뒤에라야만 文化가 發展할 수 잇다고 보는 것이요 둘째 지금의 文化를 向上시키기에만 汲汲하야 過去의 文化的遺產을 等閑視하는 것이요 셋재 文化는 오즉 民間有志의 對象으로만 녀기어 當局政策의 影響이 큼을 이저 버리는 것이다。勿論 實生活이 潤澤한 그만큼 文化에 對한 우리의 힘이 늘것은 事實이로되 實生活이 潤澤하야 지기를 기다리자고 文化的 事業이나 努力을 抛棄할 수는 업는 일이며 또 勿論 우리의 當面한 急務가 現在의 文化를 더 一層 向上시키는데 잇는만큼 그것을 置重하여야 할 것은 事實이로되 文化는 언제나 歷史的 繼承으로서 存立하는 것이매 過去遺產에 對한 愛護, 硏究, 批判이 업는 곳에는 참다운 向上이 잇슬 수 업는 일이며 맨끗으로 文化는 政治나 經濟와 달러서 民間有志의 自覺的 事業慾과 努力을 힘입는 範圍가 더 클 것은 勿論이겟지만 그여시 當局者의 得當한 政策아래서만 비로소 順調의 發展을 보게 되는 것이다。

二

萬一 朝鮮文化에 對한 지금까지의 總督府當局의 業績을 따지어 본다면 실로 적지 안한바 가잇다。첫재로 各地의 古蹟을 發掘하고 收藏하고 保存시키는 것이란든지 둘재로 朝鮮歷史와 朝鮮語辭典을 編修하야 노흔 것이란든지 셋재로 朝鮮美術展覽會를 해마다 主催해 오는 것이란든지 넷재로 各地의 民間傳承을 調査하고 蒐集하는 것이란든지等 모두다 커다란 功勞로 치지안흘수 업슬것이다。그러나 우리더러 좀더 率直히 말하라면 朝鮮文化에 對한 當局의 努力은 恒常 積極的이라 기보담도 消極的이어서 지금보담 더큰 成果를 거두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거기는 豫算의 關係도잇고 民間有志와의 協力 이 圓滑치못한 關係도 잇서서 오로지 當局만을 責할것은 아닐는지 모르나 要컨대 爲政當局者들도 우리가 이미 指摘한바의 세가지 誤解를 免치못하야 文化的事業 乃至 努力에對한 正當한 認識을 가지지 못하얏든 까닭이리라고 推測된다。지금當局에서는 바야흐로 敎育의 새로운 政策을 세워 文化朝鮮의 將來를 約束하고 잇는 길이다 이機會에 잇서서 朝鮮文化에對한 새로운 一考를 促하는 것도 오즉 無意味한일은 아닐것이다。

三

文化方面에 對한 우리의 要望은 다음과 가트니

(一) 音樂 美術等의 專門校를 빨리 세워서 그方面의人材도 길러야 할 것이요

(二) 朝鮮文化에 關한 專門的文庫나 圖書館을 設立하야써 그方面의 硏究를 助長할것이요

(三) 民間의 語文運動을 獎勵指導하야써 朝鮮語綴字를 速히 統一하고 朝鮮語의 比較的 完備한 辭典을 完成시킬 것이요

(四) 古蹟의 調査 發掘을 지금보담 一層더 積極的으로 擴張하야 줄 것이요

(五) 在來의 古樂 古舞踊等을 獎勵하야써 그 保存의 方策을 硏究하야 줄 것이요

(六) 初等小學校에 잇서서는 朝鮮語文敎育을 疏忽히 말게하고 中等以上學校에 잇서서는 朝鮮史에 對한 課程을 두어 줄 것等이다。

金鶴香油
金鶴으로潤澤하게 頭髮을愛護합시다

膠濟、粵漢鐵道沿線 敵의密集部隊爆擊!

五日海軍航空隊活躍

【上海六日發同盟】海軍航空隊는 昨五日 南北으로 노나 膠濟鐵道와 粵漢鐵道兩沿線에 飛去하야 膠濟沿線에서는 膠縣諸城莒縣附近의 敵密集部隊와 輸送自動車에 爆擊을 加하고 또 粵漢線沿線에서는 黎洞附近의 鐵道線路를 爆破한後 모두全機가 無事히 歸還하엿다

國民政府의動向

─獨紙記者의觀測─

【伯林五日發同盟】도이췌·알게마이네·차이퉁紙는 五日紙上에 國民政府의 動向에關한 漢口特派員의 觀測을 揭載하엿는데 그大要는 如左하다

一、蔣介石을 講和의 相對로하지안는다는 日本政府의 聲明에 對하야 國民政府의 態度는 一層硬化하엿는데 一方民衆의 抗日大會는 國民黨의 後援이업서도 盛大히 遂行되고잇다

二、國民政府는 브랏셀會議後 外國의 援助에 對하야 失望한 結果 蘇聯邦에 向하야 提携하려는 傾向이 强하야 孫科等은 盛히 活躍하고잇는데 只今으로서는 飛行機의 供給에 끄치고잇는 模樣으로 그量도 英國의 武器供給과 比較하야 極히 微少한듯하다

三、支那의 氣分은 前述한바와가치 매우自信이잇는듯이 보이나 그는 『時』를 延長함이 有利하다고 생각함으로써이다 國民政府는 廣東이나 漢口까지도 이미 抛棄할覺悟로 日本軍이 이들都市의 占領을 妨害하려는 努力을 버리고잇는듯하다 要컨대 支那軍의 戰略은 日本의 行動如何를 끗까지 보다는 一語에 끄친다 彼等이『時』를 延長함이 如何히 有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戰爭의 運命이 自己를 有利케 決할수는 업슬것이다

渡洋部隊○○機 漢口諸機關爆破

【上海六日發同盟】渡洋精銳部隊의 ○○機는 六日午後一時半寒風을 뚤코 長驅 漢口에 飛去하야 漢口飛行場格納庫、兵舍各重要軍事機關에 巨彈을 퍼붓고 또千田、三木兩部隊의 ○○機도 이와同時에 漢口에 飛去하야 相呼應하야 猛烈한 爆擊을 加하야 多大한 成果를거두고 全機가 모두無事히 歸還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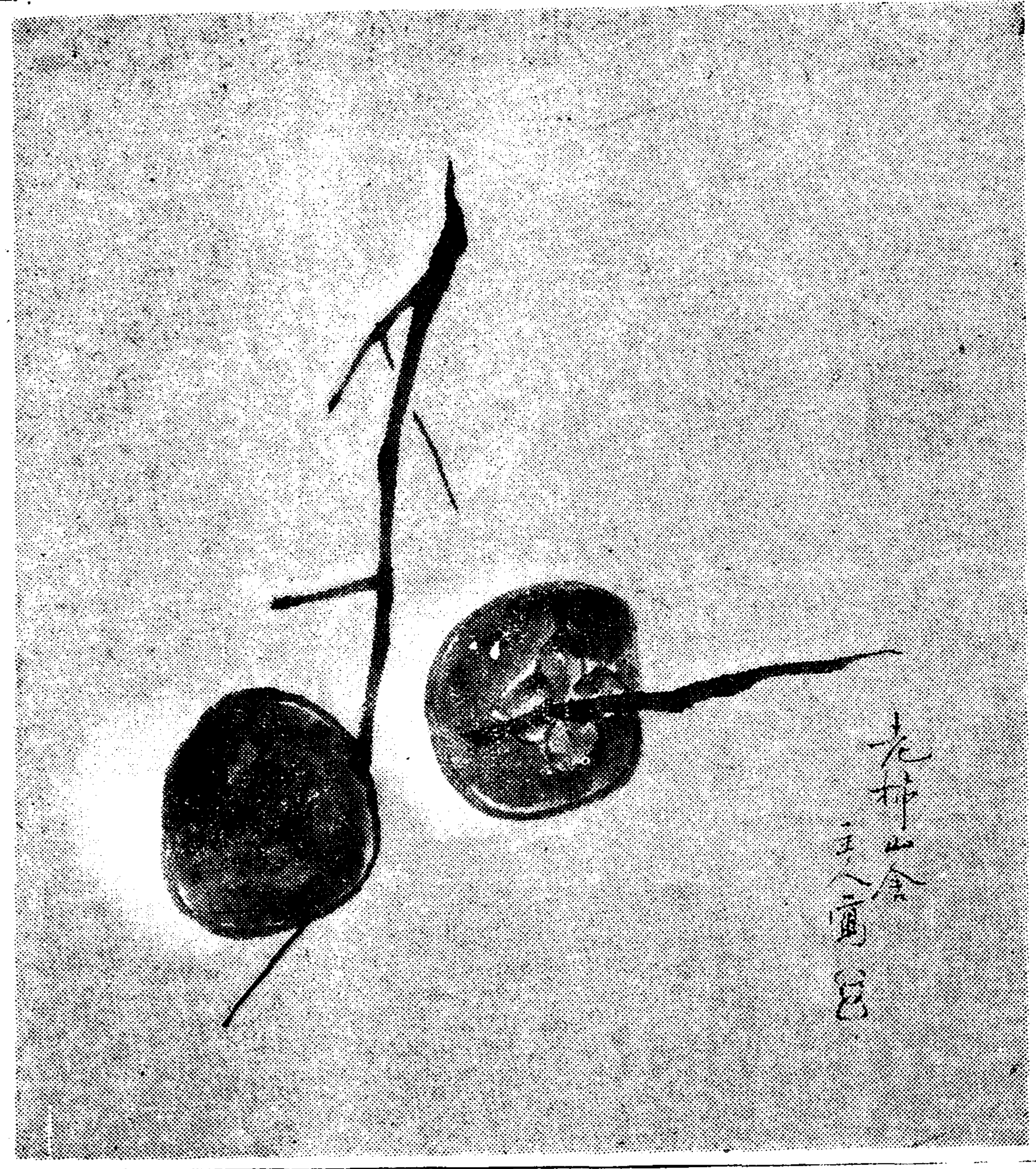
濟寧攻擊

【泰安六日發同盟】四日 兗州를 占領하고 東南方에 敵을 追擊中인 桑田部隊는 五日午後에 孫氏店 徐家橋에 依據하는 敵部隊와 猛攻激戰을한後 이를 殲滅하고 破竹之勢로써 目下 濟寧의 敵陣을 攻擊中이다 濟寧은 孫相當의 二十師와 谷良民의 二十二師로된 大部隊가 잇서서 最後의 抵抗을 하려하고잇다

孫科英獨露向發

【香港六日發同盟】新嘉坡入電에 依하면 孫科는 英國、獨逸、蘇聯三國에 親善使節로 極秘裡에 香港을出發 五日夜에 新嘉坡에 到着하야 UP記者에 左와가티말하엿다

支那今後의 抗戰能力은 香港을 通하야 武器購入의 可能性의 如何에 달렷다 日本은 粵漢線을 遮斷또는 阻止하려하고잇스나 吾人은 어듸까지든지 英國의 援助를 希望한다 英國도 香港이 孤立됨을 두려워한다 支那도 香港以外의 武器經路는 매우困難하므로 香港과 支那內部의 連絡에 全力을다할것이다



『紅柿』 金瑢俊氏試毫

海軍始觀兵式을 六日盛大히擧行

【橫須賀電話同盟】橫須賀鎭守府의 海軍始觀兵式은 六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橫須賀海兵團練兵場에서 海陸의精銳가 參列하야 盛大히 擧行하엿다 管下各艦部隊와 海軍各學校로부터 選拔된 ○○○○은 鎭守府司令長官 百武大將의 閱兵을 맛고 閱兵長國男少將의 指揮로 新春의陽光에 銃光을燦然하게 빗내이면서 壯烈한行進을行하니 鹽澤少將指揮로 海軍航空隊의 精銳二百機가 爆音을노피 上空에飛來하야 이에參加하야 空陸이 相呼應하는 豪華스러운光景을 나타내면서 同二時半에 觀兵의 盛容을 記錄하는 觀兵式의 幕을다첫다 그리고 海軍航空隊의 各機는 分列式後에 轉進하야 橫濱市를 經由하야 帝都防空飛行을 하엿다

新民會役員決定

【北京六日發同盟】中華民國新民會는 六日中央部의 重要役員을 左와如히決定發表하엿다

新民會副會長 張燕卿
同中央指導部部長 繆斌
同中央指導部總務次長 小澤開策
中央指導部敎化部長 ○○

三億圓戰時增稅斷行

【東京電話同盟】休會滿期後議會에 提出될 臨時軍事費特別會計追加豫算이 幾何에 達할것이나는 아직未定이나 抗日支那를 徹底的으로 膺懲할 長期戰을 覺悟하고잇는 政府로서는 戰費로相當히巨額의 經費를 計上하려고豫定하고잇스므로 此等財源에 對하야도 單只公債만에 依存함은 妥當치 안타고 認定하고 戰時에 잇서서의 臨時增稅를 斷行하기로 決定하엿다 增稅額은 約三億圓 豫定이나 그中一億圓은 벌서 實施期의 期限延長으로 볼것으로 觀測되고잇서 今後大藏省에서 成案을 急히한後 稅制調査會에 附議하야 그承認을 求하고 休會滿期後 議會에 法律案으로提出할豫定이다

一般會計繰入 比前年二千九百萬增

【東京電話同盟】臨時特別會計를 除한 明年度 各特別會計豫算은 十一日의 閣議에附議될豫定인데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調整을 마치고잇는이때 明年度에 잇서서 各特別會計로부터 一般會計에 繰入될金額은 總額 九千七百萬圓 (大藏省預金部를 包含함)으로今年度의 特別會計繰入金六千七百八十九萬圓에 比하야 二千九百十一萬圓의 增加를 보이고잇다

厚生省大臣 木戶文相이兼攝

【東京電話同盟】新設厚生省大臣은 木戶文相이 兼攝하기로決定되엿다

來十一日부터開廳

【東京電話同盟】新設의 厚生省官制는 이미 諸般手續을 了하고 바야흐로 大臣其他人選을 남길뿐으로되엿스므로 政府는 目下大臣以下의 銓考를하고잇는데 格別한 支障이업는限 來十日臨時閣議에서 正式으로 이를決定하고 同日官制公布를 기다리어 十一日부터 開廳할豫定이다

人事·集會

▲福田甚二郞氏(大邱地方法院檢事正)七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發赴任豫定
▲玉名友彦氏(京城地方法院檢事正)九日午後 三時京城驛着任豫定
▲森田秀治郞氏(高等法院部長)七日午後三時二十八分京城驛着任豫定
▲矢本正平氏(京城覆審法院部長)七日午後四時十七分京城驛着任豫定
▲李氏熙氏(商銀業證課長代理)新任人事次六日來社
▲德山新氏(同營業部支配人)同上

米海軍新補充計畫 兩條約限度훨신超過

테일러氏記者團에表明

【華盛頓五日發同盟】米國下院議出委員長 에드위드·테일러氏는五日午後에 白堊館의協議後에 海軍新補充計畫에對하야 記者團에게 左와가티말하엿다

루즈벨트大統領의 大海軍計畫은 米國國防의強力한 全面的擴充을 包含하는것이다 詳細한點은 아직決定되지아니하엿스나 新艦數와 艦型에 關하야 議會에 相當한 自由裁量을 주게될것이다 新計畫은 豫算의 均衡方針을 完全히破壞하게될는지모르나 國民은國防을 爲하야는 如何한일이라도 支持하리라 밋는다 루즈벨트大統領은 世界에 對하야 米國이 自國을 防禦할 準備가 잇슴을 보이지 안흐면 안될 時期이라 생각하고 잇다

同會議에 參加한 下院海軍委員長 빈슨氏는 協議의 內容에 對하야 만히 말하기를 避하엿스나 補充計畫은 倫敦、華盛頓兩條約에 基하는 限度를 相當히 超過하리라고 示唆하엿다 但今後數年間에 主力艦十二隻을建造할 事를 考慮하고 잇다는 報道에 對하야는『當치안흔所聞』이라고 全然이를 否定하엿다

國民黨神戶支部解散

【神戶電話同盟】前者新政權의母體로서 强固한勢力을가지고잇든 中國國民黨은 支那本國에잇서서도 이미名義만의 存在로되엿스므로 在外勢力으로서 長年活躍을繼續하여오든 神戶國民黨支部는 蔣政來支部解散을協議한結果 支部員二百餘名은 一人도남기지안고 脫黨을表明하엿다 이때문에 神戶市神戶區下山手三丁目의 支部에서는 書類一切를燒却 什器處分을마친後 本國黨本部에 支部解散에 依한 支部解散의通告를發하엿다

北京天津兩市長更迭

【北京六日發同盟】中華民國臨時政府는五日 議政委員會議에서 北京、天津特別市長의更迭을決定하고 六日臨時政府令으로써左와如히發令하엿다

臨時政府委員兼北京特別市長 江朝宗 免兼職
特任北京市長 兼北京警察局長 臨時政府委員 余晉龢
河北省長 暫兼天津特別市長 高凌霨 免市長兼職
北京市警察局長 潘毓桂 免本職 特任天津特別市長

陸海空大演習 二月末新嘉坡中心으로

【新嘉坡四日發同盟】英政府는來二月下旬을 期하야 新嘉坡根據地를 中心으로 陸海空軍의 攻防大演習을 擧行하기로 決定하엿다 同演習은 新嘉坡가 생긴以來 最初의 大規模的의것으로參加部隊는 陸軍一萬 空軍約五十臺 支那艦隊二十五隻으로 陸軍은 香港及 印度며 濠州로부터 大部隊가 參加하고 空軍은 印度、이라크로부터 大型爆擊機部隊가 參加하야 一大戰을 展開할터이다 今回의 演習에서 가장 注目되는것은 新嘉坡要塞의巨砲가 처음으로 參加하는것으로 四日軍當局에서는 十八吋砲가 參加할것을 發表하야 新嘉坡要塞에十八吋重砲가 存在한것이 비로소確認되엿다

下岡末亡人逝去

【東京電話同盟】前朝鮮總督府政務總監 故下岡忠治氏 未亡人은 일즉 東京市品川區大崎長者丸九二七〇 自邸에서 療養하고잇든中 五日午前八時 逝去하엿다

朝鮮內中國人은 全部新政權參加

新政權反對者는五日全部歸國

新年最初의局長會議

新春劈頭總督府 初回局長會議는 六日午前十一時부터 第三會議室에서 總督 總監臨席下에開催하고 左와如한 各局長의所關事務報告가잇섯다

▲吉田鐵道局長=鐵道局의 來年度豫算을 報告한後 鐵道旅客貨物狀況에對하야 左와如히 報告한바잇섯다

年末貨物은 約三割의 增加인 一百六十七萬噸의 滯貨가 그대로 越年하엿는데 年始휴가에 亦是 閑散하지안허서 現在 相當한 滯貨가잇스므로 舊正月까지가아니면 到底히 消化할수가업는 形便이며 旅客은 前年에比하야 一割五分의 增加 貨物은 一割一分의 增加임에 伴하야 其收入도 一割八分의增加이다

▲大竹內務局長=神宮參拜者激增 軍事後援聯盟의 北支慰問團 西岡地方課長 前田少將一行은 去三十一日 石家莊到着 四日까지 同地滯在한後 平定을經由하야 楡次에到着할豫定이며 그리고 中國人側에서 約二十年間蓄積하야 朝鮮人名辭書를 編纂中이든바 最近完成하엿스며 十三年度內務豫算은 이미大藏省을 經由하야 議會에 提出하게되엿스며 明年度는 勞働者募集激增을 豫想하게되므로 方今 其對策을硏究中이다

▲山田遞信局長=今年年賀郵便物의配達은 西洋五分의 減이오 昨年中小包 爲替 貯金 電報等은 一割의增加이다

▲三橋警務局長=朝鮮內中國領事及 中國人依制에 對하야 一月五日까지 在朝鮮中國人은全部新政權에 歸服하엿다고 보아도無關한 程度이며 新義州中國領事의 極力進出에 依하야新政權反對者는 去五日全部歸國하얏다

▲鈴川專賣局長=北支로부터煙草의大量注文이 잇섯다는報告

▲財務局長村山稅務課長=昨年中貿易狀況의 報告가잇섯다 最後로 大野政務總監으로부터 來年度豫算에 對하야 左와如히說明한바잇섯다

朝鮮豫算은 大藏省의 査定을經由하야 議會에 提出하게되엿는데 南總督의 五大政綱에 對하야는 中央에서도 支援하고잇스므로 豫算上別支障이업스리라고 밋는다 그런데 議會에 無事通過後라도 無用의 消費가업도록 留意하여야 할것이다

今回豫算은 現金豫算外에 物資豫算이 追加하야서 國際收支에 對하야 圓滑을期한것이다

夕刊後市況 六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	三三·六
釜山	—	—	三三·五五
群山	三三·八五	三三·二六	三三·三二
木浦	—	—	三三·三六

◆大阪 棉花 後引◆ 當限 五六〇〇 先限 五四四五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七九〇 先限 七一六〇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六九〇〇 先限 六六七〇〇

今日本紙朝刊 夕刊合十六面

普通文官講義

獨學으로 判任官
創立廿六年의春! 官公吏를養成해年年普通試驗合格者를 내여 會員의就職官廳은 北은樺太廳及北海道廳부터 內地各府縣을爲始하야 四國、九州、臺灣、朝鮮、滿洲國等에及하고 그리고 先任者는後進會員을斡旋採用하고잇는故로 只今에는本會員업는官公署가업는偉觀을呈하고잇다

日滿官廳에 本會員充滿

前年도 本會員 五百名 試驗餘 合格 率先就職

小學校卒業後獨學으로出世하려는 諸君은 本會로오라! 一萬名의 成功者를낸 歷史에빗나는 本講義를배운다면 一年以內에 普通試驗又는裁判所書記試驗에合格 日鮮滿의各地官公署에採用되여 一躍『判任官』으로될수잇다 前年度도本會員은 各地試驗에五百餘名合格颯爽하게 官廳에드러갓다

新年會員募集
本會에入會 二三個月로試驗에合格 卽時官廳에 드러간이가 前年度도多數함 只今入會하면 本年內에試驗合格 官界進出도可 卽刻오라

本年內에 官界에 進出

凱歌揚る 機關雜誌 新年特輯號!! 目下新年大特典提供中

百頁無料進呈

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
東京市澁谷區明治神宮表參道
振替東京一二三四五六番

器煮汁藥
(新案登錄第32412號)
警鈴付漢藥다리는機械發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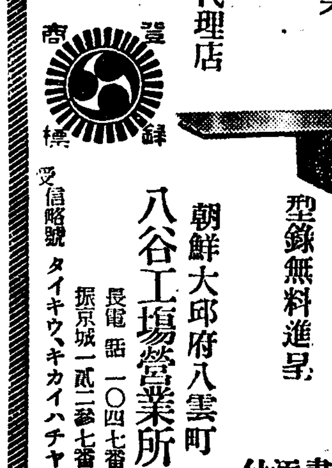
大邱府 元 徐鎭甲

最モ完全ナルハチヤ發動機
製造直卸

ボクタ型石油發動機 實用本位 三馬力半ヨリ七馬力半迄

八谷式精米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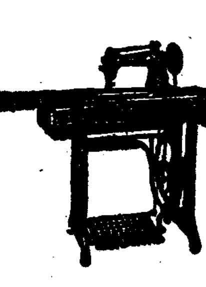
傳動具一式 機械工具一式 各附屬部分品在庫
(型錄無料進呈)

シンガーザラミシン代理店特約店募集
◎日本ミシン製造株式會社製

製造元ノ十ケ年保證證書添付

總代理店 製造直卸
朝鮮大邱府八雲町 八谷工場營業所
長電話一〇四七番 振京城一貳二參七番
受信略號 タイキウ、キカイハチヤ
型錄無料進呈

별표고무신

입부고튼튼하기로제일
京城府本町
中央商工株式會社

責任保證付
싱거ー中古재봉틀
(新品의約半價)
家庭用 九十圓부터 百〇五圓
職業用

京城鐘路二丁目一七
楠商店
電話光三九六番

B 次舞篇

國唱朴氏와意氣投合 斯道에精進大成!

發奮忘食 衰退하는朝鮮歌舞界를爲하야 晩年에는老軀끌고陣頭에!

묵은朝鮮의새香氣 (6)

예술가는 고금을물론하고 다 그러하며 항상고독과 적막을 느끼게되는것이매 리해업고 쓸쓸한 타향사람이 그를포용하기에는 너무도 적막하얏든것이다 그리하야 예술계에 불타는 삼십일세의 청춘시절부터 추월춘풍 방랑의길은 시작되엇든것이다 본시비한햇스매 로비가든것이 풍족햇을리업는 그의방랑의 길이 한가할리업서 어느때는 동무에서낄낄고보니 어느때는 나무미테서 부형이와하가지 춤을주엇다 또어느때는 달밝은강변에서 월색에 도취되어 노래도불럿다 [illegible] 장단치이도또한그다 팡막한벌판에서 주린창자를 끌도리가업섯스나 어느누구한사람 동정이업섯스며 타향에나와서 벙드럿스나 몸한곳음 변변히 어더마시지못하고 신음판권도 또한한두번이아니엇다

◇

그러나 어듸까지 불타는청년예술가의 의지는만난이 아페가로노힐때마다 용기는 더욱왕성하야 이마을서 저마을로 이산에서 저산으로 이불에서저불로 쫏아서 표류하는동안에 완성된 북장단과춤을가지고 한양길을 차저드럿스니 때는당십오세되든해가을이엿다

◇

당시 국창(國唱)박기홍(朴基洪)은 우연한기회에서 한씨를만나 그북이 한번울리매 천고예술의 [illegible] 전후육년동안을 익수하고다니면서 그북을처주엇다 그리하야당시 한양의명창들은 그(한씨)가아니면 소리에 장단이빼엿고 세도재상들의 사교게는 그의춤이아니면 소조적막하얏섯다 하여간 당시그북、그춤이 그때사람들을 도취시킨것은 더말할것도업는 그당시의호화판이엇섯다

◇

그가비록 예술에취하고 풍상에시달려서 무정한백발이 빨에서혓날리고잇스나 예술에불타는가슴은 쇠퇴하야가는 조선가무음악을볼때마다 『예술은길고 인생은짧다』드니 인생은짧고 예술도짧구나하며 장태식을한다 그리하야 근래에와서는 은근한번민과고통이 그를소리업시 울리고잇스니 그것은 최근조선고전가무음악이 점점침체함락하야가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는최근 이방면의 부흥에발분하야 활약한결과 상당한 활기도엇지는이요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락관할수업다하야 조선고전가무음악을 이르키기위하야 면면홍지들과 악수하야가지고 현대식연구기관을 건설하얏스니 그것이 곳조선음악무용연구회다 이 기관은 방금경운정(慶雲町)사십칠번지에 회관을건축중인데 이것이완성되는날에는 조선가무음악을희망자에게 연구교수하는동시에 매월한번식 고전가무를공연하야 대중화시켜서 장래의비나는 발전을도모하기로 되엇스니 이것이 예술조선의 통쾌한새소식이아니고 무엇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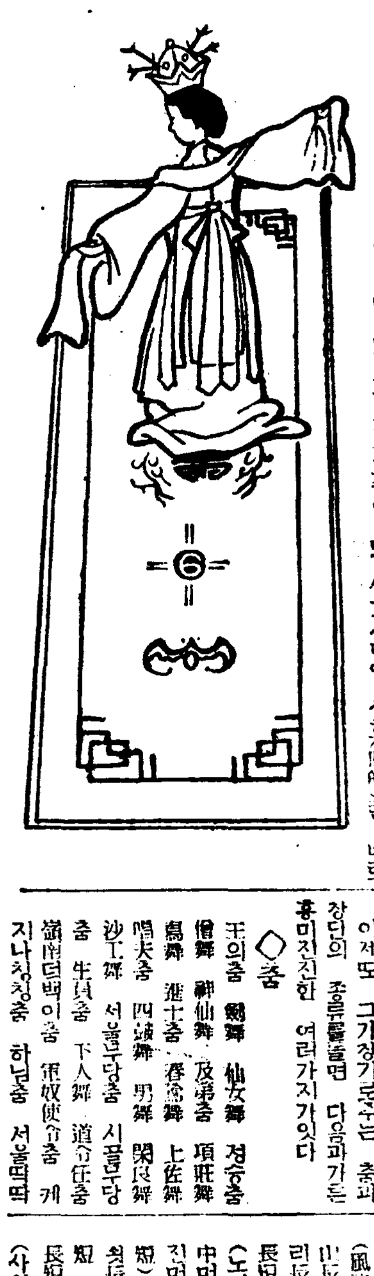
◇

이로써자최를 감추랴든 조선가무음악도 신춘의동파회계 활기를띄우고 부활의길에 등정하야 길이길이 빗내게되엇다

◇

그의특의춤에 멧가지를드러서 그유래와내용의대개를 소개하야보는것도 예술적흥미가 업지안흔것이니 위선승무(僧舞)춤은 어떠한것인가?

고구려평원왕(高句麗平原王)시대에 [illegible]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보고 거문고를만드러서 백여곡을작제하엿는데 [illegible]



合席會議論爭中心은 理事會權限問題

宣教會끗까지新入生募集에本部承諾固執

暗雲重疊‧儆新問題

석간기보=해도바귀어 신학기를 압두고 신입생을 모집하느냐? 안느냐? 다시말하면 학교문을닷느냐?안닷느냐? 하는 경신학교(儆新學校)문제는 비단 경신학교 한곳에만 관한것이아니고 이 경신문제의 결착여하로는 장로회선교회 계통의 다른학교문제까지 결국 결정을보게되는것이어서 각방면의 주목은 비상히 크든터에 이문제에 관하야 동교리사회와 선교회실행위원회와는 전혀 대립된상태에서 원만한해결을보고 [illegible] 작년말리사회의 결의를중심으로 동교의 존폐문제가 중대히 론의된것을 더욱 세상의 주목케되엇든데 이제 리사회와 실행위원회사이에 전개된론쟁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즉 상방이 합석하야 론쟁한바를 간략히 말하면 선교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어데까지나 소위『방침』에의하야 금춘부터 신입생모집을 안흐련다 학교문을 다드려는 전제임에반하야 리사회로서는 어데까지나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교를 영구히 존속하겟다는데서 리사회의 권한과 동리사회결의의 정당여부를 론한것이다

經過

리사회와 선교회실행위원과의합석은 동일오전십시부터 련건정(蓮建町)실행위원장로해리(Harry)씨집에 열리어 먼저는장방으로부터 입비적토론이 잇슨후 최후의 론점에들어가서는 작년말리사회측에서 실행위원회와는 전연대립되는 사개조의 폭탄적결의를 한데대하야 축조질의(逐條質疑)가 잇섯다 즉전기결의문에 대하야

一、오는사월에도 전과가티 리사회로서는신입생을모집하겟다는 것에대하야

(實行委員側) 선교회실행위원회로서는 본부의 방침에 의하야 신입생을 모집치안흐련다 만일모집한다고하면 본부의승락을 바더야한다

(理事會側) 학교를 경영하는 주체는 리사회임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안는것은 리사회의 권한이아니냐 그러고 리사회가 규정에 씨운바와 마친가지로 학교의 존속발전을 위하야 금춘에도 학생을 모집하겟다는것은 당연한데 만일 신입생을 모집안는다면 리사회의결을 거처서 본부의 허락을 마물지언정 종전대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데야 선교본부의 허락을마리야 할필요가어데잇겟느냐 그러타면 삼십여년동안 학교를 경영하면서 사무처리로 되여잇스니 리사장이라고하되 표결권업는 나 리사회의 규정에 교장은 측에 가담하리라고 할지몰으나 교장까지가 결국은실행위원회측

(理) 선교회측 사람이라 하야

(實) 리사장이 표결권을 가질수잇슬것이아니냐

(理) 결의는 반수 이상이라야 성립되는데 리사회에서 표결권을가진사람은 선교사측과조선인측이 각히네명식이니 반반으로는 리사회해체의 결의가성립못된다

(實) 그러타면 우리로서는 우리의방침을 수행키위하야 리사회를 자멸(自滅)케할수잇다 즉 리사회내에서 리사회의해체를 결의하면 어떠케할터이냐

고 하엿다 여기에 소개할것은 리사회의구성인데 리사회는 선교회측에서네명, 경신학교동창생회측에서두명, 한국교회(老會)측에서두명 학교직원측두명이 『옵서버』로들엇고 학교장은 리사장이라고하엿스나 단순히 리사회의사무취급자로 들어잇슬뿐이란것이 동리사회규약에 명백하다 이에대하야 리사회측에서는 다시물리어

신입생 모집할때마다 선교본부의 허락을 한번이라도 마튼때가잇느냐? 실행위원회는 리사회의 규약을존중치안흐려는 태도가아니냐

고 수응함에 실행위원회측에서는 리사회의해체는 결국불가능하다고하야 첫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의대립이 잇섯슬뿐이다

二、리사회가 신입생을 계속해 모집할때의 경비분담문제

(實) 만일리사회에서 그대로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경우에는 선교회로서는 경비를 부담할수업다

(理) 물론리사회에서는 선교회측에서 경비를 부담안는대도 책임지고 부담경영한다

三、미슌회에서 인퇴하기 편리케하도록 학교설립자로 한명더증원할것

(理) 현재설립자는 선교회측의 한사람으로 되여잇스니 다시 조선인한명을 증가하면 어떠냐? 선교회측에서 언제인퇴를하던지 인퇴하는때이면 조선인설립자가 다음의 책임자로나서면 학교존속을 위해서는무관할것아니냐?

四、미슌회에설비 (학교의 건축물기타)는적당한 시기에 반환한다

(理) 이결의문은 선교회측의의견을더욱 존중한것이다 리사회로서는 학교의 경영수제임으로 학교건물설비등을 인계바 받지도 아니요 살것도아니다 현재대로 학교를 존속할때까지 사용하되 선교회측에서 인퇴하는때를 기다려모든 설비를선교회측에 반환할것뿐이다 실행위원회측에서는본부의 방침이라하야 양도도안코 팔지도안코 대차도 안는다고하나 리사회가 건물기타설비를 사용하겟다는것은 그어느 하나에도 당치안커니와 후대차한다고해도 대구(大邱)의례에의하면 본부방침이 대차(貸借)는 허한것이니 백보를 물러서 리사회가 학교설비를 차용한다면 또이떠나

고하야 질의응답은 대략여기에 끗낫다 [illegible] 다음 다시 본회의로드러가 동회의의결의는 팔일에 리사회에 회부되기로 되여 팔일 오전열시 쿤쓰교장집에서 리사회가 다시열리기로되여 문제는 다시심각히 전개될모양이다 한편실행위원회는 밤열한시가 되도록 회의를 진행중으로 그신추이태도는 과연 어떠한결의를 남길것인가 여전히 주목을 끄으는바이다

實行委員會議 深夜토록繼續

그러고 실행위원회측은 륙일오후세시반부터 다시 회의를열고 경성스테ー숀회원과 의견교환 [illegible]

農科는別個로考慮 鑛山、機械兩科設置

崇專校舍借用·在學生은當局善處

明日發表 「大同工業專門」組織全貌

폐교되는 평양숭실전문학교의후신으로 리종만(李鍾萬)씨의 손에 의하야 평양에 신설되는전문학교는 동씨가 작년시월삼십일 계획을 발표한후 우여곡절을 지나 겨우당국과의 사이에 의견의일치를보게되어 칠십일동안의·진통(陣痛)으로 기보한바와가티 칠일오후 그구체적내용을 함국국 평남도당국 리씨측으로부터발표하는동시에 설명서까지발표하리라는데 그내용으로는

一、基本金百三十萬圓으로 財團法人大同學院을 組織하야 經營主體로함

二、校名은 大同工業專門學校라는것을 第一候補로함

三、設置學科는 爲先 採鑛、冶金 두學科를 合한 鑛山工學科 機械工學科의 二科로하고 可及的速히 電氣科를設置하기로하며 當初計畫하든 農科는 別個로計畫함

四、現在專學生은 平南道當局이 責任지고 善處하기로되엿스며 校舍는 平南道當局의 斡旋으로 崇專校舍를 二年乃至三年間 賃借하기로함

等이외가티 시설외교내용은 교명학과기타모든점에잇서서 숭실을직접후계하는 학교라고는 할수업스나 이것은 당국과 절주결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전모가당초와는 변하게되엿스며 다만그신설동기가 폐교되는숭전대신이라는점에 잇서서 『숭전후신』학교라고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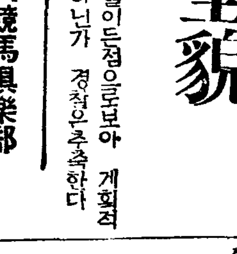
左翼演出家吉田氏 愛人과越境蘇聯에

「竹(日活)」시대에 죽내량일(竹內良一)과 종희사건(宗姬事件)을 일으키고 유마으로부터 무대로 전향한 강전(岡田)『요시꼬』(ㄹ)는 신극협회의 연출가 길전호정(吉田好正)(ㄹ)씨와 가티 지난삼일 눈바리지는 화태부항(樺太敷香)을 뒤로하고 일소국경에 향한채 종적을 감추엇는데 이두사람은 그날 국경경비대를 위문한후 보호하려고 동행한 경관두사람을 뒤에떨어트리고 고만 국경을 넘어서소련령으로 도주하야 버렷다 길전씨가 평소에 좌익예술가로요 [illegible]

國防獻金千圓 釜山競馬俱樂部

부산경마구락부(釜山競馬俱樂部)에서는 비상시국의 국방헌금을 거출하야·애국의성의를 표하고자 지난추계경마대회입장료금천액기타잡수입을합하야 일천원을군부방헌금으로 헌납하얏다

白麟濟氏 洋行中歸京



경성의전(京城醫專)교수 의학박사 백린제(白麟濟)씨는 소화십일년시월십삼일에 조선총독부외국특파연구원으로 경성을 떠나 독일백림(伯林)을 비롯하야 불란서(佛蘭西)이태리(伊太利)오스트리아(墺太利)、핀란드(芬蘭)정말(丁抹)、영국(英國)각지에연구려행을 마치고 미국(米國)뉴욕에 들렷다가 일년이개월만에 금팔일 횡빈(橫濱)입항의 룡전환(龍田丸)으로 귀국할터이다

鐵道局黑字旋風 旅客貨物四割增

元旦부터五日間統計

신년정초에 일반영업자는 모두 영업을쉬고잇는데 철도에서만은 도리여평소보담 훨신더 만흔운수성적을 나타내고잇다。 일월일일부터 오일까지 닷새동안에 조선철도국의 수송개황을 보면 발송수량은 [illegible] 천삼백구십구『키로』로 전년동기의 [illegible] 『키로』에비하면 오십『퍼ー센트』나증가하엿다。그증가된원인은 작년에비하야 적체된화물이 만혓기때문이다 주요한 화물은 쌀 [illegible]『키로』석탄 [illegible]『키로』이엿는데 쌀은 각항구마다배가부족한탓으로 수용능력이업고 철도수송력은잇스나 도착기의 관게로 자연 수송제한중이며 또석탄을 될수잇는대로 모든힘을 다하여 수송에 노력중인데 대체로각방면에 모두 지장은업다 그리고 이달안으로 새로맨든 화차도운전하게될터이므로 다시수송에원활을 도모하기로될듯하다고한다 [illegible]

運動競技

五百米는崔龍振君이 萬米엔張君優勝

學生氷上에明大軍六年連霸

【八戶市發電】第十二回全日本學生氷上大會스피ー드競技 第二日은 六日午前十時부터 靑森縣八戶市長根링크에서 繼續擧行하바 第一日에 十二點을獲得하야 斷然優勝을보이든 明大軍은 이날도 崔龍振君이 五百米에、張祐植君이 一萬米에 各各 優勝하야 早大를 물리치고 六年連霸의偉業을達成하엿다 이로써 朝鮮出身選手가 全種目에 首位를 占하엿다

海外觀察員留學生 學資旅費를增給

[illegible]

延專大勝

對千葉OB戰에 八十四對三十으로

【東京支局特電】第十七回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第二日의 延專對千葉商業OB第二回戰은 六日午後五時부터 一橋國民體育館에서 擧行하얏바 延專軍騎頭부터 優勢를보이여 前半四十二對十八 後半四十二對十二 結局八十四對三十으로 延專大勝하야 第三回戰에드러가 大正大學對埼玉俱樂部의 勝者와 對時케되엿다

◇養正對秋田工業 럭비戰績을 電光뉴스로報道◇

全日本中等럭비ー界의 覇權을다투는 養正高普對秋田工業의 最後決戰은 今七日午後二時부터 阪神甲子園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準決勝戰에서 崇德中學을 三十六對零으로 擊破한 秋田工業과의 對戰은 滿天下의 興味를 닭울이끌고잇는데 本社運動部에서는 此一戰의 經過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一般에게알리기위하야 今七日午後六時부터 和信屋上의 朝鮮日報電光뉴ー스로 報道하기로되엿다

養正對神戶二中詳報

第廿回 全日本中等校럭비ー大會準決勝··養正對神戶二中戰의詳報는 다음과갓다 이날午後一時에는 晴天無風으로 兩校對戰에 가장適合한 날세이엿다 前半戰이 開始되자 養正軍은 其精悍한 體力에元氣百倍의氣勢로 攻擊에나아가니 神戶軍은 FW가겨우 『스크람』으로써 養正의重壓FW에 對應하야 五分頃에는 中央線附近에서 一大混戰을 演한後 十分부터는 養正『빽·로ー』의 敏活한活動으로 因하야 神戶軍은『빽스』에로聯絡을 傳하기不能하야 『스크람·하프』或은 『스탠드·오프』에서 겨우『킥』할수밧게 別다른길이업섯다 其後에도 빽의神戶軍門前에서만 놀드니 十八分에는 養正의『빽·로ー』李康悅君이 神戶陣 左側三十碼에서 『뜨리볼』하야 『세트』TB李元載君에게 파스하니 이를바더서 黃仁寬君에게 또다시 『파스』하야 곳左隅에 트라이하엿다 이리하야 神戶軍은 [illegible] 『빽·업』에 封鎖되자『태클』되여 數次의得點할機會를 노치고『노트라이』로 3:0으로 養正『리ー드』한채 前半戰을 마치고 後半戰에 드러가서는 養正軍은 여러번『빽스』의 『킥』으로써 神戶軍을 壓迫하야 五分에는 FW의 總攻擊이잇서 神戶陣行側十五碼에서의 『루ー스』에서 神戶의『스탠드·오프』新行君이 失手한 볼을 『스크람·하프』의 [illegible] 이 奪取하야 이것을『고ー론』·로ー』尹台泳君의 技妙한트라이로『스코어』는 벌서 6:0、其後에도 養正軍은 意氣衝天하야 FW의 『뜨리볼』은 갈수록 猛烈하야 十五分에는 崔枚晶君의 『뜨리볼』로 또 트라이하야 9:0 二十二分에는 白五鉉君의 四十碼獨走의『트라이』를獲得하야 드듸여 12:0으로 凱歌를 올엿다

中東對崇實의 京平中等籠球

廿一、二兩日平壤서

【平壤】半島中等籠球界의 王座를決定할 京平兩都市의 中等籠球聯盟戰의 優勝校中東과 崇實의對抗戰은今年으로 第四回를 마지하게되여 今番은平壤當番으로崇實專門體育部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오는二十一二兩日午後七時부터 府內新陽里崇專體育館에서 擧行키로決定되엿다 京城軍은 過去一無勝負와 二敗의戰績인만큼 復讐戰을하려는 決死的意氣를 가젓고 平壤軍은 連覇의 榮譽를死守하려는데서 大激戰이 展開될것으로 豫測된다

白狗와練光主催 京平氷上對抗

明日、大同江링크

【平壤】윈터ー스포ー츠界의最高峰! 京城 白狗滑氷俱樂部와 平壤 練光滑氷俱樂部主催의 第九回 京平對抗氷上競技大會는 明八日 午前十一時부터 平壤練光滑氷俱樂部의 當番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練光亭下大同江『링크』에서 盛大히 開催하기로 되엿다 京城白狗 四勝三敗、平壤練光三勝四敗의 戰跡을 가지고잇는 만큼 白狗가 連覇를 할것인가 練光이 雪辱을 할것인가는 퍽도 興味를 集中하고잇다

京城代表平壤에

京平氷上對抗에 出場할 京城代表軍은 昨六日午後十一時 京城驛發列車로 下壤하엿는데 京城軍의陣容은 다음과갓다 ▲監督崔在鼎 ▲코ー치嚴點得 ▲트레나 金永河 ▲主將白承哲 選手朴佐用 張錫榮 金容義 李明天 李鉉貫 金點鉉 金吉用

앞은곳에 발느면곳나스는

神經痛·류ー마지스

치운요새에 신경이쑤시도록 고통을주는 神經痛 류ー마지스의 발작시에는 사로메지ー루를발느시고 살살문질느시면 암마의物理作用과 强力한藥物의滲透作用으로 병근원에작용하야 향기로운냄새와 함께 爽快한기분이들며 그린게심하든고통이 곧개입니다 뿐만아니라 藥을발는후 거북하지않고 남보기에도실치않음으로 사용하시기에편합니다

담결니는곳에

다드미질 바누질 빨내등을안저서하시다 가일어나실때 쑤시고 아푸며 절니는筋肉류ー마지스에는 잇지마시고 本劑를발느시면 곧 나어편하시게됩니다

가정응급상비약

으로 어느家庭에도 한개식 준비하여두시어서 갑작히 아픔을늣겨서 참지못하실때 평지落傷 삐인곳 담결니시는때 허리와다리가쑤시고 절니며 앞을때 피부가가려운병에 목이앞을때 少量을塗擦하시면 향기로운양냄새와함께 爽快한氣分이돕고 곧 낫는약입니다

定價:五十錢·一圓·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합니다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ー루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明治座 松竹キネマ 1月4日ヨリ8日マデ 新春プロ時間表

	1	2	3
ニュース	10·40—11·02	2·38—3·00	6·40—7·02
中劇 嫁さか演	11·05—12·29	3·03—4·27	7·05—8·29
空よなぜ	12·33—1·48	4·31—5·46	8·33—9·48
嫉から實	1·58—2·23	5·56—6·21	10·00—10·23

若草劇 換氣暖房完備 一月四日より七日まで

一回	二回	三回	四回
後篇 12·05	3·20	6·50	
1·10	4·25	7·55	
10·15	1·30	4·45	8·15

エノケンの猿飛佐助 後篇 大毎大朝ニュース 踊らん哉 (1)東寶超特作品 一健本主演 (2)超特作 OKR ドッスアーティストジンジャーロース主演

每日晝夜三回興行 六日ヨリ九日マデ四日間公開 階下席十錢均一 ハヤブサヒデト 佐久間妙子主演 國天リタツハ ダルエニ ルジーヤンシ主演 バーリブ長隊 阿部九州男 木下双葉主演 宇都宮釣天井 (日支事變ニュース上映)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階上 大人六〇 小人五〇 階下 大人四〇 小人三〇

東洋劇場 電話光化門 二三六四〇(事務室專用) 二二五四〇(劇場專用) ◇劇團靑春座公演第二週 (前週의絶讚續演) 一月七日부터(每日夜間만) ◇九月山人作 寸劇『네것내것』 ◇林仙圭作 悲劇『젊은그들』全四幕 ◇冠岳山人作 『아버지는답답해』一幕 ◇李雲芳作 『사랑하는까닭에』全五幕 今週限午後六時五十分開演

桃花劇場 電話 一三三 ◇一月七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松竹キネマ社特作全發聲日本版 現代名篇 入媒合戰 巨人ゴーレム 赤穗義士傳間兄弟

겨울에는 부인병을곳치고 귀여운애기를 나으시기바랍니다

쌀쌀하게춥고 눈나리는겨울에는、등잔불밋테서 독서하기에도 조흔시절이지만 한편으로 이시절에는 여러가지병에 걸리기도쉽고 재발하기도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더욱이 가정부인에게만흔 자궁병은 지금부터 점점고통이 심해저서아름다운 육체를버려먹고 부인의용모와 건강을 날로해롭게하야 애기를못나케하므로 지금까지평화하던 가정에생각도안흔 가정비극이 생기는일도 적지안습니다、그러면 이자궁병에대하야 가정부인은물론이오 처녀까지라도 꼭 알어야할 위생지식과 부인의건강법과 애기를 잘나케하는방법을 다음에 소개하겟습니다

애기를 못낫는원인은 남편에게도잇슴니다

남마다 음식을먹기는하야도 별로히맛을몰으고 또한 식욕이업서서 음식을잘먹지못하므로 몸은날로말너서 살이빠지고 원기가업서지므로 몸전신이노곤하야지며 수족이냉하고 얼골에회색이업고 두통현기가심하고 아래배가쑤시고압흐고 가슴이답답하야질뿐만안이라 월경이불순하야지고 음부에서는 몹서리칠만큼 악취가심한 대하증이 흘으는것은두말할것업시 자궁병이잡복된 증거입니다。이와갓흔 병세는

평시에

자기가 몸조섭을 잘못한 탓으로 발생하는 부인병이지만 또한가지주의할것은 남편의 한번 실수로 발생한 림질은 좀처럼 근치할수 업슬뿐만아니라 그림질균이 한번부인에게전염되기만하면 자궁내막염이되여서게란희자나 누런코물이나고름가튼대하증이흘으게됩니다이대하증이점점심해지면 대하물이방팡으로드러가서 방팡염을이르키고 또한 내막염을치료하지안코내버려두면 점점심해저서난소염이나란팔관염이발생하고또는 자궁실질염이나 자궁외막염이되는수도잇슴니다

남편의

림질은 자연히 부인에게까지 전염되고 림질이 부인에게 전염된때에는 첫재로 아래배가 압흐고 몸에 열이생기고 좀더 심해지면 관절염이되여서팔굽치나무릅갓튼 뼈마디가압흐고 잘못하면 절름바리나반신불수가되는수도잇습니다 혹시젊은부인들게서 다리팔에뼈마디가압허서고통하는것도 림질이전염된까닭으로생기는 관절염에걸린까닭입니다 이와갓튼병세는 대개급성이지만 림질이전염되엿다고 누구던지급성자궁병이되는것이안이라 사람에따라서는 그와반대로 별다른고통이업시 만성자궁병이되는수도잇습니다。다시말하면

대하증

은잇서도 허리가 조곰압흐다든가 아래배가 조곰 이상스러울뿐이지 별다른 고통이 업다고 약도쓰지안코 치료와조섭을 게을리하고 내버려두는동안에 림질균은 점점속으로 깁히드러가서 랍팔관염이나 란소염 방팡염 실질염 자궁외막염 내막염을이르키는고로 결국은애기를배지못하게됩니다 보통젊은부인들게서 결혼후三년 五년이지나도록 애기를배지못하는원인을 조사해본즉 대부분이남자의림질이전염되여서 애기를배지못하는것이지만 이것을몰으고신세한탄을하시는분이얼마나만습니가? 그러므로

애기를

배지 못하는 원인은 물론 부인에게도만치만 남자에게도 잇습니다 즉 남자가 림질로하야 고환염을심하게 알흔즉 정충이 업서지므로 부인이 무병한때라도 애기를배지못하는것입니다애기를못배게하는 부인병에한가지약만으로는 완전히낫지안흠으로내복약과 외용약 두가지를쓰지안흐면안됩니다 그동안 약광고에속고서외용약한가지만을써보신분은잘아시겟지만 아무리조타는외용약이라도 깁히깁히잡복된부인병이 완전히근치되지안흣것이니모든부인병으로하야 애기를배지못하는부인은 하로밧비 부인병에특효가잇다고 신용을밧는『명지모』와 『오기나구』두가지약을쓰시기바라나이다

여기서부인의 월경불순과림질균이전염된 자궁병대하증을근치하게하는 내복약『명지모』를복용하시면 얼골에화색이돗고 주름살이펴지고 아름다워지며 손발이더워지고 혈기가잘통하야 체내에잡복된 림질균을전부죽여버리고 병약해진세포를회복식혀주는결과 혈색이정결하게되는동시에 여성의호르몬이왕성하야지고 또한외용약『오기나구』를사용하시면 음부와 자궁속의 병독을 전부 죽여버림으로 불순하던월경이 순조롭게되며 대하증이근치됩니다애기를못낫는부인의대부분은 월경불순과 림질균이전염되여발생한모든자궁병대하증으로하야 애기를못배는것이니 이약을 쓰시고 자궁병 대하증이 근치되고 월경이순조롭게되면 틀림업시포태하야 귀여운애기를 나으실것입니다

남자의림질에는『快淋丸』이제일적당할줄밋사오니 소용되시는분은선금으로二圓을보내시면十五日분 약을보내드립니다

婦人良藥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子宮出血 白帶下症 下腹腰痛 頭痛眩氣 手足冷症 産前産後

이약은 광고와조금도 틀림업시 약효가유명한약이니 이약을 주문하야쓰고자하는분은 병세를속임업시 자세히적어서 본포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약을 대금인환으로보내드리오며 또한약을선금으로 주문하시는분에게는송료를전부본포에서 부담해드리오니 여러분께서편리한방법으로의올주문하야쓰시기바랍니다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三十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二十日分	三圓	二十七日分	三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六日分	一圓	八日分	一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本舖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今日의新聞

을자세히 읽어보시고오려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笹岡省三藥房으로 보내시는분에게七大醫學博士가 親切히指示하야 朝鮮말로알기쉽게자세히쓴 婦人病自宅療書와命之母의 說明書를 누구에게던지 無代進呈하오니 하로밧비 申込하시기바랍니다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笹岡省三藥房에서 朝鮮婦人에게 衛生智識을普及식히기爲하야 一般家庭에 한권식 거저드리는것이며 藥을注文하지안는분이라도 請求하시기바랍니다

라이온치마

今年부터는
齒牙를一層强하
게하여健康한몸으
로熱心히工夫합시다

라이온치마는殺菌,清掃力이强한第一
조흔치마임으로 아침은勿論 저녁자기
前에쓰시면 蟲齒가생기지안코 身体가
健康하야저서 원제든지 元氣가드득한
明朗한몸이됩니다。

라이온치마本鋪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호랑이꿈

(一) 高信煥

여러분 새해에 복만히 받으셧습니까。

저는 어제ㅅ밤에 이런꿈을꾸엇습니다。

다른것이아니라 올해는 호랑이해라구하는대 그래서 그런지 바루 호랑이꿈을 꾸엇습니다。 그럼 으찌 자미잇섯는지 그꿈이야기를 할터니 들어보시오

우리앞집에 수동이란는 올해에 한살더먹어 아홉살된 아이가 잇섯습니다。

수동이가 설빔을하고 새로사온 고무신을신고 집에서 한십여리나되는 아저씨집으로 세배를 가겟지오。

가더니 그의 아저씨와 아즈머니께 세배를 하고나니깐 떡국도 끄려주고 또엿도 먹으라고 주겟지오。 수동이는 조화서 만이먹고 오려니깐 세배갑스로 작난감을 사든 내맘대로하라고 돈이십전을 주겟지오。 수동이는 깃버서 고맙습니다하고 바더집으로 도라오게 됏습니다。

오다보니 길거리에 작난감파는이가 벌려놋코 작난감을 만히노코파는데 외통 아이들이 둘러쌋지오。 수동이도 생각하길 아저씨가 작난감이든지 내맘대로 사라고햇스니 내여기서 딱총이나하나사리라하고 삼전짜리 딱총한나와 일전짜리 딱총약 한창을 삿습니다。 그리고남저지 十六전은 엄마갓다주고 그나머지 모와두리라하며 조화서 쓰지안코 우선 길거리에서 한방쏘아보고 깁븐듯이 집으로 뛰어옵니다。

밤고개넘어 또한고개넘어 인제집까지 오자면 한고개만더넘으면 되는데 너무깁버서 뛰어오기때문에 다리가압허 어느나무밑에가 앉저쉬게 되엿습니다。 그리고는 뭇시졸녀이와서 깜빡잠이들어 버렷습니다。

그런데아차큰일이낫습니다。 어디서생겨낫는지 커다란아주커다란호랑이 한머리가 떼충이나듯 어서 배가곱흐든지 이리저리어 웅거리며 먹을것을 찾고 야단입니다。 그리다가 마춤 수동이가 졸고잇는것을 보고는 올타꾸나하고 달려드려 어웅하고단숨에 꿀꺽 생켜버렷습니다。

어찌됏겟습니까 야단낫지오。 그러나 보세요 수동이가 뚱하고 떠러지는바람에 깨어서보니 캄캄한 굴속이지오

「아니 여기가 어듸야?」

「아니 무슨구녕이 엽렷다 다 처다 하는것가수 우습다 에이 무서워! 정칙거 우선 딱총이나 한방노쿠……」

호랑이뱃속 그렁컴한곳이지만 그래도 호주머니속에서 딱총과 약을꺼내서 재이고 한방—뚜—두방—세방—탕탕놧습니다。

호랑이란놈은 제가생킨 뱃속에서 무엇이 땅땅 소리를 내며 도들도들 하니깐 야단이 낫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뒤다른애깁니다만 뒤ㅅ집에사는 옥예 열살된 복길이역시 올으로 매부집에서 세배ㅅ다가 떡이니 파일이니 잔뜩바다먹고 또 세배ㅅ돈으로 이십전이나 엇어가지고 아조 조화서 도라오는데역시 길가 장난감파는곳에서 복길이는 풀떡총 오전어치를 삿습니다。 그리고 집에가면서 장난해보리라하고 성냥 일전어치까지삿습니다。

그리고는 아주신이나서 집으로 뛰어오게 됏습니다。 복길이역시 메칠전부터 설이 도라오면 조는생각에 잘도 잠못자든판이고 먼길을 것기에 고단하든판이라 맥고개넘어서 오다가 어느 풀밭이인데 풀을 헤치고 쉬이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조용한것스라니까 졸닙이와서 풀밭에 쓰러저 추운줄을 도릅으고 고만 잠이들어 버렷습니다。

이러는가운데 악가그른 호랑이가 아즉도 배가탈나서 돌든는 먹을것이 업나하고 한곳을보니 역시 어떤아이가 쓰러저 자고잇슴으로 올타꾸나하고 뛰어가서 대통 한숨에 또 집어삼켜 버렷습니다。

그러니 어떠케 되엿겟습니까? 먼저드러가잇는 수동이 머리우에 무엇이 뚱하고 떠러젓습니다。

이러는바람에 수동이는 어이쿠소리를치고 깜짝놀랏스며 복길이도역시 아야ㅅ소리를치고 고만 잠이깨엿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어이구머리야 하나트면 고개뻔뻔햇네」

「애 여기가 어디냐 대관절……」

「글세 나도어까부터 통 몰르다 무슨일을것기도하구」

「무어 글쎄 그런데 뭐이어떠케 뭉클뭉클하냐」

「그래 게천구냥 갓기도하구」

「오 참 여기 성냥잇지 어디켜봐야지」

「무어 성냥잇서그럼얼른켜봐」

두아이는 이러케지거리면서 성냥을 톡—하고 켜봣습니다。 보니깐 앞뒤집사는 친한동모 수동이와 복길이 아니엇겟습니까 둘이는 놀라서

「아—수동아!」

「아—복길아!」

「너 웬일이냐?」

「넌 웬일이냐?」

「참잘맛낫다 그런데에 너오늘 세배ㅅ돈 만히버럿니 난 아저씨집에서 이십전벌엇서。」

「이십전—나도매부한테서 이십전벌엇다。」

「너두버럿구나。 난그리구 여기총하구 딱총약하구 삿지。」

「그래 난풀떡총오전어치사지왜 우당통탕하고풀노리하는것말야」

「그럼이나 도하게」

「나도 풀떡총이나 하리라보구」

둘이는 서로서로 딱총을놋는다 풀떡총을 투두려룩룩하고놋는다 하고 야단을 쳣습니다。

자—이러고보니 이호랑이란놈은 어떠케 되겟습니까? 시장한김에 두아이를 그대로 생키긴햇스나 뱃속이 켜져서 죽을지경입니다。

그런데다 복길이가 성냥을 커댓는데연 뜨거워서 펄펄뛰지경입니다。 더욱이딱총치파 풀떡총이뛰는바람에큰야단이낫습니다

호랑이는 이리뛰고 저리뛰고 생야단을첫습니다。

이러는판에 수동이가잇다가

「애 복길아 우리 조와하는씨름이나 한번할가?」

「옹그거조치조와!」

「자—그럼—」

「엥차!엥차!」

「에두러머차!」

둘이는 이리뒷둥 저리뒷둥 뒹거리고 호랑이 뱃속을 걷어차며한바탕씨름이시작되엇습니다

家庭

요새느러가는양장옷 멋벌이나잇스면되나

필요한것멧가지만잇스면 두루두루쓸수잇다

요사히 직업부인들은 대개가 양장을 합니다。 이것은편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엇던사람은 아즉도 양장보다는 조선옷이 경제라고 하는이가 잇습니다。

이것은 양장을 조선옷처럼복잡하게 생각하는까닭입니다。

서양녀자들은 실상일부의 귀족계급이나 사교계외에는 양장은 극히간단하게 합니다。

대체양장이란 멋벌을 가저야 할지? 그리고 엇던것을 가릴가 하는것부터아라봅시다

이것은 미국여배우가 발표한 직업부인의 의장속을 살펴보겟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네의 가옥구조와 그들의 가옥과 실내생활 양식이 전연다르다는것을 짐작하고다만참고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부인은 류행의첨단을 의복으로표현시키기보담차라리 한철식스마—트하게 오래지탕할수잇스며 보수적인 의복이 조습니다

극단으로 멋만보다가는결국 맵시를마칠 념려가잇습니다。

그래서 겨울치장으로 제일필요하고 중요한것은오—버인데 제일조흔 코—트의 타입은 모피가업는고동색이나 거문것입니다。

모피는 아름답긴하나 아조썩조흔것을 사지안는한 빈약한모피는 도로혀 어색하므로 이것은모피를 대용하는것이고 마푸라로 대용하는것이 좃습니다。

여기에 코—트빗체 드러나도록 가는비갈의지를 상의의(上衣)가 필요합니다。 칼라와카푸스에는힌빗치나흔은색다른 빗으로서 젊은기분이나도록합시다

그다음에 그레—프의드레스가 두벌이잇서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해동안은지탕하도록 아조 튼튼한 것을 가지고 만드러야합니다

이것만 두벌잇스면 여름가을 겨울은 아모걱정업시 입을수가 잇습니다。

어상의것에돈을 너허두면 그밧게는 여러가지 부라우스와 스카—트등으로 그때그때의 기분에따라서 맛출수가잇습니다

더욱만찬가튼데 초대를맛고갈때입도록 크레—프의 상의가 봇도록 어더라도 넉넉하게 갈수가잇습니다。

부족품의 구두나 빽은될수잇는대로 조흔것을 사는것이 더업니다。

그러나 모자는 너무돈을 만히들일필요가 업습니다

보통이면 베레—가튼것의 극히간단한것을 가지도록하십시요

그밧게 드레스나 코—트를 만드를때 가튼감으로 모자를 만드러노흐면 경제도 될뿐안이라 조화도 그럴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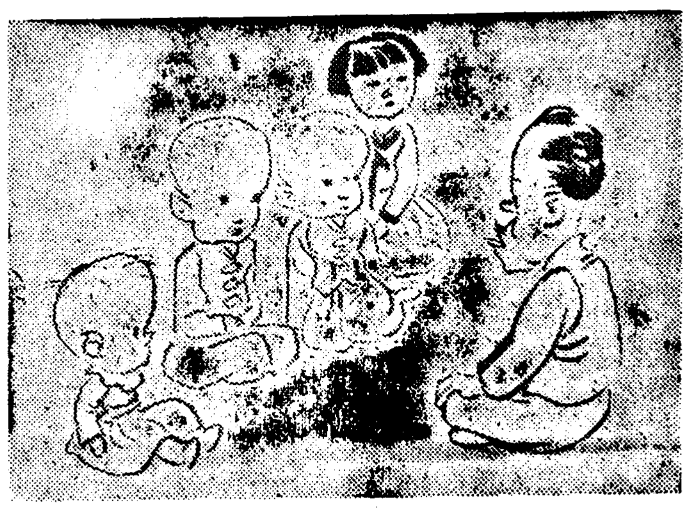
雲圃 金基昶氏筆

우리차지

새해

아저씨 말슴이
「애들아 오늘아침에
떡국먹은 애두잇고 고
기먹은애두잇고 굶은
애두 잇겟지만 우리가
다가치 가튼것을 먹은
것이잇다。그게뭘까」
「구결몰라요 나이한
살식」

(경성사립 윤주원)



과학적으로봄 "술취하는것"

혈액중의알콜도수에따라 취정에등분이생겨

요사이는 나가나 드러가나 술을 마실기회가 만흐며 사실상요지음에는 술주정을 조금하야도 그다지 흉으로알지안는 모양입니다。 새해의 축배에 취하는맛이란 평소에는 상상도할수업슬만큼 질거운것입니다。 사실술의 면혹은 현미치 축축하게숨여드는 향기에잇습니다。

그러나 술을마시는데도 입에만 술을대이면 얼골이 붉어지는일도잇고 두주(斗酒)를 마시여도 놉흠히 취하지안는 술군도잇습니다。

웨 꼭가튼인간으로서 취하는이도잇고 취하지안는이도잇는지 취한다는 사실에 대하야 생각해보면 알콜이 혈액가운데 드러가서 그것이 뇌중추(腦中樞)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각신경계통이 교란되여서 유쾌해지고 울고도십고 소리처보구십기도합니다。 따라서 취하는도는 혈액중의 알콜도수에 의하야 취정할수잇스나 술(酒)에대일때부터 취하야 잠들때까지를 칠기(七期)로 구별할수잇습니다。

제일기 혈액중의 알콜 농도가 ○、一五퍼—센트이하의 때는아직 얼골도붉지안코 취정도 나지안습니다

체량七○키로의 사람이 공복일때에 술을먹는다치고 세홉을 마시엿슬때입니다 그러나 이알콜분이업서지기까지는 약열시간은 걸려야합니다 제이기는알콜농도가○、二퍼—센트에 달하면 유쾌해지고 천하를 장중에너흔것갓치됩니다 이때는 약네홉만 올마시엿슬때의 현상으로 열네시간후이래야만 알콜분이 업서집니다。

제삼기는 알콜농도가 ○、三퍼—센트가되면 그만귀치안허지고 괴곤해지며 구역이납니다。 주량은 여섯홉반으로 스물한시간뒤가 안이면 알콜분이남어잇습니다 그러므로 술마신잇흔날 술냄이납니다

제사기의 알콜농도가○、四퍼—센트가되면 현혹증이 생기며 거름 거리가 온전친어 집니다 이때는 한되 가량마시엿슬때의 현상입니다 알콜분이 업서지기는 스물아홉시간뒤래야합니다

제오기의 알콜농도 ○、五퍼—센트의 때는 기운이업서지고 기대여서지안흐면 제대로서서견데지못합니다

이때는 한되두홉의 술을마시엿슬때입니다 알콜분은 서른다섯시간 뒤가안이면 삭어지지안습니다

제육기의 알콜농도는 ○、六퍼—센트로서 이때는 벌서 하날도땅도 안보일때입니다 한되네홉을 먹엇슬때의 현상으로서 사십두시간뒤가 안이면 알콜분이소멸되지안습니다。

제칠기의 알콜이 六퍼—센트이상에 달하면 그만속고맙니다

이표준으로보아서 술을만히먹어도 취하지안흔사람은 체내에 알콜의 산화작용이 강한까닭입니다

산화작용이강하면 알콜은 그만 탄산가스로 변해버립니다

산화작용이 강하다는것은 그사람의 체력이따른다고 보아서 큰잘못이업스나 술을만히먹고견게먹는것은 (술을먹어서 술편으로된사람은)중독상태에빠지지안혼사람과의차이에 지나지안습니다

(술이취치안흔대는 효모(酵母)라는것이 효험이잇습니다 이것은 효모의비타민과구균특히 푸라번이산화작용을 도우는까닭입니다

생선을지질려면?

생선은 그냥 지지면 반드시 고약한 냄새가납니다

어것을 그냥 지지지말고 한번술에 구은다음에 지지면 맛도조코 이상스런 냄새도 나지안습니다。

도한 지저면 곳 부서지는생선은 지지기전에 한번 소금물에 당거두엇다가 지지도록하십시요 부서지지안코 맛도좃습니다

謹賀新年

森永ミルクキヤラメル

밀크캬라멜

우리들은설이오면집안어른들과동리어른들을차저다니며세배를합니다그러면「에—고놈기특하다」하시고세배갑슬주십니다우리들은기뻐서다름박질로집에가벙어리에집어너코남어지로森永캬라멜을사서먹습니다

森永製菓株式會社

最近世界科學의成果 (中)

原子構造의單位와 人工的原子破壞

崔奎南

原子의各構造成分

今日原子研究에잇서가장重要한 八個의成分을 列擧하면 即電子 陽子 陽電子 中性子 알파粒子 뉴—주론 光粒子等인데此等 成分에對하야 簡單하나마 紹介하기로한다

電子(Electron)上述한바와가치 電子는 原子核中에나 또는 原子核周圍에 運行하고잇는것인대 此兩者의 電子를 類하야原子核外에 잇는것을 外電子

核 內에잇는것을 內電子라고한다 그러나 兩者는 全然同一의 性質을가진것이다電子의質量은 九·〇一『그람』을 一〇아래 零二十七個나 달린數로 除한 極微量이오 其帶電量은 4.774×10^{-10} 靜電單位이라.

또電子는『라디움』과 如한 放射能을 가지고잇는 所謂 放射性物質로부터 放射되는『베타』粒子와 同一한것이다 電力의大小에 對하야 一般讀者는 아래와가티 생각하면조타. 普通彈丸을 百億倍하면 地球의 싸이스에 近似하고 原子의 直徑은 一米假定이되면 電子의 直徑은 〇·一耗에 가까운 微粒子이다.

(二) 陽子(Proton) 陽子는 水素原子核인데 水素原子는 陽子와 그周圍에 一個의 浮游電子로 構成되엿다 陽子의 電荷는 正이고 電子와 同量의 電氣를 帶한것이다 其質量은 電子質量의 約二千倍나되는것이다. 그런고로 原子核의 質量을 陽子質量의 總和로 생각하면조타 電子 或은 陽子의 帶電量은 電氣量의 最小單位로 其以下의電氣는 이以上에 存在하지안타.

(三) 陽電子(Oostron)陽電子는 米國少壯學者『앤드손』氏의 發明으로 氏가 一九三六年度노벨物理學賞을 獲得한것도 이

功 勞의 結果이다『앤드손』氏는 所謂『윌손霧函』을 使用하야 宇宙線의 徑路를 撮影한後에 此宇宙線에 關한 研究를 하엿든 것이다. 氏는 磁場을 加하야 宇宙線의 徑路를 彎曲케한後宇宙線의『에너지』를 測定하엿다『에너지』가만흘사록 彎曲시키기가어렵다 그런데 實驗途中에 意外에도 反對方向으로 同一한程度로彎曲된 宇宙線을發見하게되엿다 計算하여보니 이것은 質量이電子와갓고 電氣符號가 서로相反되는 二種의粒子가存在함으로 나타나는現象인 것을알게되엿다 即宇宙線中에는 陽電子와 電子가잇는것이 分明하다『앤드손』氏는 이러한發見으로 陽電子의對偶가되는 陽電子를說明하엿다『떡랙』其他純正物理學者들이 理論的으로 陽電子의存在를 豫言한것이 實際에證明된것이다 陽電子는 正電原子中에는 存在치아니하고 宇宙線이라든지 其他放射性物質로부터 放出되는『깜마』線이 原子核中에

突 入하는同時에 陽電子와 電子가 發生하는것이다 이것은 原子中에서『깜마』線이 所持한『에너지』全部가 消失되고 其消費된『에너지』代身으로 普通電子와陽電子가 發生되는것이라고說明한다

(四)中性子 (Neutron)中性子는 一九三二年에英國『채드윅』氏가 佛蘭西『조리오』夫妻의實驗을基礎로하고 發明한것이다中性子는 陽子와거의 同質量의粒子로서 電氣的으로中性 即正負電荷를 不帶한 中性粒子이다이것은『베리엄』과 如한元素에다가알파粒子를 放射하면 發生되는것인데 原子番號 原子價〇의 元素이다 原子價〇이란것은化學的反應이 全然不能한것을 意味한것이다 이와가티 化學的無反應의 無粒子인고로 物質을自由로貫通하며 容器中에 封鎖할수도업는것이다 人間의身體를自由로貫通하여도 아모異常을보이지아니한다 獨逸『레나드』氏는 일죽히 中性子의 存在를 豫言한일이잇고 英國『리사포드』卿은一九二〇年에 英國王立學士院講演會席上에서 其存在를 預斷한일도잇다 原子를

破 壞하는데는 膨大한 『에너지』가 必要하다 그런고로 現科學에잇서서 이方面의研究가 顯著한 發展을 보이지못하는 其主原因도 此에在하다 普通物理學的或은 化學的現象에서는 그와가튼 膨大한『에너지』는不必要하다 即 普通化學作用 스펙트럼 x線의發生은原子核의 周圍를運行하고잇는 電子의 變化로 起하는 現象임으로 原子核自體는 其目的을 完全히 達成할수가 잇스나 原子核의 主體인 原子核을 破壞하든지 或은 合成하는데 잇서서는 膨大한 에너지가 必要하다 그러나 이中性子를 利用하면 大部分의 元素를 그와가치 莫大한 에너지를不要하고도 容易히 原子核을 破壞식힐수가 잇다 그것은 中性子는 電氣를 不帶한 中性粒子인고로原子核의 外電子를 排斥을 當하지아니하고 原子核의 外圍를 同時하고 無難히 其外圍電子圈을 通過하고原子核中에 侵入하야元素를 變換키하는것이다 그런고로 此中性子는 物理、化學界 아니라

生 物界 醫學界에서도 劃期的일것이다 上述한四種의粒子가 互相間如何한關係를 保持하고잇는가? 하는問題에 關하야는 現在 科學의理論으로는 解決하지못한 未知數로되여잇다 中性子는 正電氣를 帶한 陽子와 負電氣를帶한 電子와의 結束粒子라고 說明한다

新春文藝選後感

一記者

今年度 新春懸賞文藝의 應募作品數는 總計 四千五百三十五篇이엿다. 昨年에만 比해도 八百六十七篇이나 增加한 셈이니 文學이란 반드시 量으로 따질것은 아니라고하드래도 우리文壇을 위해서 四千五百三十五名이 動員이되엿다는 事實을 생각한다면 이만한 擴張量을 가진 우리文壇의礎石이야말로 결코 弱할것이라고 할수는업다.──라고하는것은 質과 量이란 반드시 同義語는 아니라도 또한 반드시 二律相反하는것은 아님으로 이러한 飛躍的인量的增加는 그와同時에 飛躍的인 質的向上의 可能性을 保障하는때문이다.

그럼으로 四五年前만하드래도 新春文藝의 當選은 文壇進出의登龍門이라고한것이 한개의 廣告的文句에 지나지못하여서 千篇이면 千篇이고 二千篇이면 二千篇中에서 그중에제일 나흔作品을 골러서 一等羅列主義를 取해왓스나 지금은이만한 飛躍的인 質的向上의可能性이 保障된 作品의 數交量對한以上에는 이新春文藝의 當選이야말로 廣告的文句로서의 文壇登龍門을 만들것이아니라 정말 事實上의 文壇登龍門을만들어야 하겟다는것이 考選의첫目標이엿다. 그래서當選의 水準을 應募된 作品에서 세우는, 말하자면 作品追隨的인 一等羅列主義를 採用하지 안코 미리 現文壇의 水準을 基準으로 해서 그水準을 超過하지는못해도 적어도 그水準에 接近하는標準으로 考選에 臨한때문에여러가지로 募集한 作品部類中에서 흑은 一等이잇는것도잇고 업는것도잇스며 엇든것은選外에 밝힌것도잇고 또엇든것은 아주업는것이잇는것은 當然한 結果이라고생각하는데 이러한 經過를通해서 入選된 作品은 이미報道된바어니와 그러한結果를 엇기까지 隨選에 드린 作品을 도라본다면 短篇小說에서 金白鳥氏의『一週間』과 戲曲에서 閔孝泉氏의『동배』라는것 두편이잇섯다. 그러나 短篇小說인『一週間』은 一等當選小說인『낫생이』에比하면 作品으로서 넘우 떠러지고 戲曲인『동배』는應募된 作品中에서는 제일엇스나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考選方法이 作品追隨主義가 아니엿슴으로 入選이 되지못한것이다.

그러면 入選된 作品에對해서 말해야 하겟는데 詳細한것은 勿論 紙面關係도 잇거니와 그것보담도 當選作品의批評은 批評家의 할일이지 考選者의 할일은 아님으로우리는다만 이러한作品을 뽑앗스니 批評家와 讀者의 檢討를바란다는, 말하자면 入選作品에對해서 作者와의 連帶責任을진다는 處地임으로 더욱이 批評에 각가운말은 할必要가업는데 다만入選된것의 責任上 그入選된 條件을 몃가지들겟다. 첫재 短篇小說『낫생이』는 그테一마에 잇서서 作者의 深刻한 觀察과 纖細한靜觀이 一貫되여 잇는것을取하엿다. 그럼으로 描寫에잇서서도 緻密하고 戲曲해서이만하면 旣成文壇에 내여노하도 佳作部類에 屬하리라고생각한때문이다.

다음으로詩『雪夜』는 抒情詩의 喪失時代이라고 할만한 요사이 드물게 보는 佳篇이라고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雪夜라는 한개의 情境이 詩人의 고요하고 외로운 心魂과 잘調和되여 조곰도 無理가업는 表現이라는것이 取한점이엿다

實話의『호랑이써커ー스』는 첫재 實話이만큼 內容이 事實이냐 아니냐가 問題인데 이實話는 決코 架空的事實을寫實的으로 敍述해서 實感을주는것이아니고 事實의事實을 純粹的으로 描寫하는데 實話가小說로보다 區別되면서 上乘의境地를 차질수잇다면 이作品은 그러한傾向을 가진作品이다.

그리고 童話『내동무』는 素朴한 着想한듯하면서도 精巧한表現이엿다.

그밧게 選外는 入選까지는 어렵고 落選은 아까운程度엿다.

그러나 選外라고해서 아주 水準에 떠러지는것이아니라 말하자면 嚴選의結果이라고만하겟다. ──完──

『春意』 以堂 金殷鎬氏 祝筆

六日(木曜)

◇午後六時 童話『호랑이꿈』 宋一光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全國中繼)『朝鮮호랑이의傳說』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度望(五) 第二放送課長 沈友燮
◇新春野談大會
◇同八時 野談『軍國의女性』 車靑吾
◇同八時三〇分 野談『假假將軍』 庾秋岡
◇同九時 野談『蔵拜床』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六時〇分 (東)世界偉人傳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同
◇同八時〇分 (東)講談
◇同八時三五分 (東)音曲
◇同八時五〇分 (大)浪花節

七日(金曜)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 愛戀(四) 成東鎬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生活을改善합시다』 張和順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기차 二、同 별의 아롱 三、獨唱 애기각씨 四、獨唱 시집간누나 五、齊唱 동물원 六、同 달 七、獨唱 고갯하늘 八、同 시집사리 九、齊唱 골목영감 十、同 애기달 忠信學院兒童 伴奏 金龍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各國의新年마지이야기』 晋成高普 姜在鎬
◇同七時三〇分(東)管絃樂 一、歌劇『天國과地獄』序曲 옷펜바크作曲 二、圓舞曲『春聲』요한슈트라우스作曲 三、皇軍讚歌에依한變奏曲 하이든作曲 四、行進曲『雙頭鷲旗下에』와ー그너ー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아우그스트·융칼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興夫歌 唱 丁香 伴 元 興?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白鷗詞 二、길軍樂 唱 安鶴仙 金花香 大笒 金永根 [illegible] 金一宇
◇同九時 講演 新年度望(六) 總督府社會教育課長 金大羽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小出
◇同六時(東)偉人傳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東)管絃樂
◇同八時(東)人情噺
◇同八時三五分(東)長唄
◇同九時(東)時事解說

新刊紹介

◆物質文明은어데로 韓穉振著 發行所 京城府八判町四三 日月書房出版部 振替京城二六〇七三番 定價二十錢
◆풍천검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擎志町八〇 풍천검社 振替京城二七〇〇四番 定價十五錢
◆한글 第二十一號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一五二 朝鮮語學研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定價十錢 送料三錢
◆正理會報 第六十九號(月二回) 發行所 京城府今泉町三二 基督敎朝鮮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新春懸賞文藝 入選者略歷

玄德

明治四十四年二月八日生 本籍 京城 現住 仁川龍岡町七八番地

第一高普를 中途에 나왓슬뿐 별로 履歷이랄것이 업읍니다 면해 마다듣기운을 밟는 生活과 여기솜 솜을 돌릇기 위하야 文學을 보아왓스나 것도 이럭이럴지 모르겟읍니다.

林正華

大正三年三月三日 本籍及現住所 平北妙香山驛前 學歷、別無 放浪生活 數年。演劇運動數年

金光均

二十六歲

一九一二年開城産 開城商業學校를스처 現職會社員 그동안먼지가튼 詩作에엄 말하자면 無가한散文가튼것、工業研究。

張應斗

二十五歲

慶南統營邑朝日町二四二番地에 出生되어 學歷은 白紙이옵고 祖父님과 嚴親께서 漢文을조금 배웟슬뿐 現在同住所에살고잇스며 특員은 方今 가튼것이 업기에 發表치못하옵나다.

朴勝烈

現二十四歲

原籍 平安南道江西 一、十四歲時 江西私立西湖學校卒業 一、十七歲時 平壤崇實學校中途退學 一、以來放浪。小說에趣味를가지고잇습니다

高信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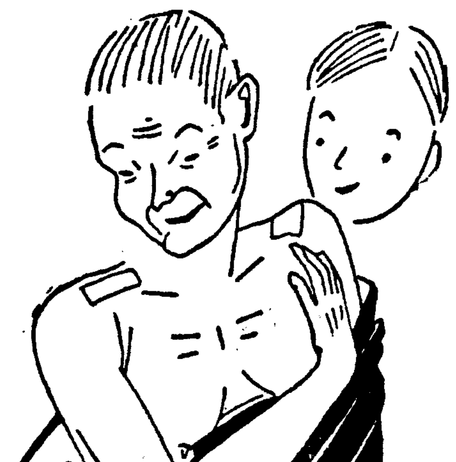
二十五歲

京城府北町二七二 履歷은별로 이러타할만한것이 업고 학교교육도 별로바든것이 업시 남의회사에 고용사리를하면서 아동문학방면에 유의하고잇습니다.

謹賀新年

效果本位의有名藥

담결니는곳에 마마ー푸라스타ー



아푼곳 담결니는곳 등에붙이면 곧낫는

本劑는 한번붙이면 藥效가 二十四時間이나 두고 持續的으로 발휘됨으로 고통도 곧개이고 상쾌한 기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本劑만이가지고잇는特有한신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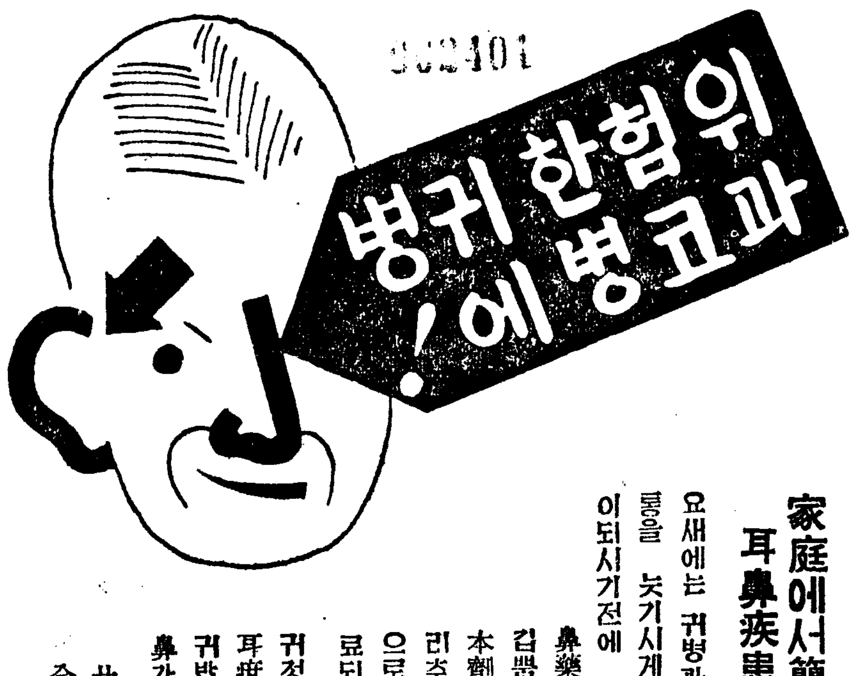
本劑는 고통을 곧개이게할뿐만아니라 병근원에까지 作用하여 근본적으로 곳처줍니다

사용법은 약재의표면에붙은 가제를떼여서 적당히 붙이시면 됩니다

神經痛 담결니는곳 견비통 근육통 삐인곳 관절통 치통 乳腺炎에 특효가잇읍니다

약가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各地藥房과大木合名會社에서試用藥을進呈함



家庭에서簡單히 耳鼻疾患이根治되는藥

요새에는 귀병과코병환자께서는 몹시고통을 늣기시게되는때이니 위험한중한이되시기전에 하로바삐大木(오ー기)耳鼻藥으로곳처주시사 根治의 깁븜을얻어주시기 바랍니다

本劑는 獨逸의 醫學大家「포리추웰」博士의 처방하신약으로써 家庭에서 간단히치료되야 곧낫는약입니다

귀졋·耳道炎·귀가아픈데·耳痛·耳內濕疹·耳가다루·귀밥·急性慢性鼓膜炎·鼻漏·鼻가다루등에특효합니다

卄錢·卅錢·五十錢·一圓

全道藥房에서 판매합니다

大木耳鼻藥

림질에

京都帝大化學研究所 創製의淋疾根治新藥

一、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 發明完成하신 特許「金屬오르가노졸製法」을應用한약이니 銀과內檀油의특수결합으로強力한殺菌 소독 收斂 利尿 진통작용이 어느약보다도大선 唯一의銀內服治淋新藥입니다

一、外部로부터 人工的으로하는 주입 洗滌 揷入藥과는달느니 內部로부터 藥理的으로 곳처주어서 併發症을防止하며 胃腸의 고장을이르키는법이없이 短時日안에根治식혀줍니다

一、고로이도銀特有의침투력으로 속속드리뿌리백힌淋菌을 모다죽이나니 尿道側管 膀胱 副睪丸 攝護腺 자궁내막 란소 랄팔관등의병증을 끈낫게만드는약임으로 남녀급만성림질환자의一大福音의新藥입니다

本劑는 全道有名한藥房에서 판매합니다 만일 賣切된때에는 직접 本舖로 주문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곰송약하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淋疾과그療法」이란冊을 룽지하시는대로 無代로進呈합니다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四十五錢

바로ー루

ハローール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
大阪市東區淡路町

謹賀新年

醴泉

醴泉官吏一同

醴泉中央醫院 院長 李重鉉 電話三一番

穀肥官鹽貿易商 黃喆周 電話一九番

龍宮面協議會員 尹鳳鉉

甘泉面縣內洞 乃倉金鑛事務所 趙世永 李昌植

豐壤面洛上酒造場 李浩根

醴泉酒造株式會社 振替京城二三七八番 電話四六番

喪中欠禮 醴泉郡虎鳴 金相教

醴泉製弓商會 電話六五番 振座京城一五五七七

醴川郡初等學校長一同

龍門面職員一同
甘泉面職員一同
柳川面職員一同
豐壤面職員一同
知保面職員一同
開浦面職員一同
普門面職員一同
虎鳴面職員一同
上里面職員一同
下里面職員一同
龍宮面職員一同

龍宮繁榮會長 三枝鉦三郎
消防組頭 中村利通
龍宮郵便所長 任秉煥
龍宮公醫 紫田重良
龍宮金組理事
龍宮水防團長 權五德

慶北線柳川驛前 柳川釀造場 趙秉郁

㊟荷主運輸組 主任 金庚東

朝鮮料理 樂泉館

三和鐵工所 主 全珪浩 振替釜山四二九〇番

慶北醴泉邑 福永精米所 主 張福伊 電話六一番 電略〇フク

醴泉酒造場 尹重鉉

朝鮮料理 大興館 主 權重衡

醴泉郡 學校評議會員 林世潤

醴川邑長 金炫鍾

株式會社大邱商工銀行 醴泉支店 振替釜山五一七九番 電話二一番

豐壤面高山洞 黃金山 金鑛事務所

和洋料理 泉家 電話一四番

回春堂藥房 電話五六番 振替口座釜山七三二九

漁新酒造場 李海洙

醴泉穀物商組合 組合長 張命吉 理事 金斗玉

醴泉料屋組合 藝妓一同

公醫 中島貢 電話一〇番

中條齒科醫院 院長 中條信次

喪中欠禮 醴泉邑 李衡杰

大成自轉車店 主 韓宇教

慶北龍宮 尹載鉉

開浦面協議會員 白文欽

開浦面協議會員 白忠欽

永信社木工部 主 朴永基

開浦面 實業家 辛相珪

渚川酒造場 崔致文

知保市場 穀物商 趙秉麟

醴泉酒造場 鄭丸謨

下里面協議員 李昌雨

稷山酒造場 禹仁世

醴泉藥業組合 組合長 尹政熙 理事 朴奉洙

慶北醴泉邑 永泉商會 主務 黃善周 電話三三番

龍宮驛前 穀物貿易 丸王商會

開浦精米所 李晶雨

醴泉種苗店 主 黃達洙 振替釜山七七七四番

虎鳴驛前 ⊙朴取引店 朴勝泰

天主教神父 權永兆

龍宮面協議員 金明顯

柳川面協議會員 姜信度

龍門消防組 組頭 朴魯鑽

醴泉邑會議員 具滋益

鄭寅鶴

穀物商 朴湘鳳

穀物商 金斗玉

米穀商 張道根

司法書士 張洛元

金山商會 電話八番

甚谷酒造場 安重鎬

甘泉驛世堂藥局 主 金大煥

新陰酒造場 權五煥

甘泉酒造場 權奇晉

知保市場 玄惠基

京津酒造場 朴義祥

穀物商 權泰益 電話六四番

松永百貨店 金允植 電話三〇番

[illegible]酒造場 尹世熙

日新堂時計店 振替京城一二〇六七〇番 電話七〇番

日新堂時計店 許奎

柳川面協議會員 李宰實

製藥人蔘商 開城商店 金萬炳

松原百貨店 吳[illegible] 電話三三番

金物商 實進商店

渭川取引店 金[illegible]

居昌 朝鮮料理 孔小[illegible]

居昌市 [illegible]

甘泉大[illegible]醫院 朴基[illegible]

洛上市 金在[illegible]

京南堂時計店 主 崔東[illegible]

龍宮市 四友堂時計店

泉香酒造場 殷在敎

居昌

居昌郡廳

居昌南昌醫院 愼昌縡 電話番

居昌酒造組合

居昌邑 全相吉

居昌邑河山醫院 河周鉉 電話番

渭川面 渭北興業社

居昌邑

熊陽 李太永

居昌警察署 署長 菊地福次郎

居昌邑慶尙ゴム商會 李尙雨 電話六五番

北上面職員一同

加祚面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邑 養生堂藥房 藥劑師 金得洙 電話番

居昌邑 京屋洋服店

大邱地方專賣局 居昌出張所員一同

居昌砂防事業所 職員一同

居昌邑 金成昌

居昌邑 邑會議員 崔永塾

居昌邑 邑會議員 章東觀

居昌和信連鎖店 主 愼鏞柱 電話四五番

安齒科醫院 醫師 安義成

居昌邑 敬信洋靴店 主 韓寅卓 電話一三番

シンガーミシン會社 居昌分店 主 許中錫

大昌貨物自動車合名會社 李益德

慶南居昌邑 大成自轉車商店 主 金炯龍

南下面事務所 面長 尹秉洙

南下面屯馬里酒造場 金俊榮

南下面屯馬里 同井稷 金銀至

南下面栗項里 尹龍植

渭川面芽東里酒造場 金淇先

南昌金融組合 渭川支所

渭川面 鄭泰均

加北面夢石里酒造場 趙秉來

神院面職員一同

南上面 面長 金鎭翰

主尙面職員一同

月川面 金淳億

加祚金融組合 理事 車啓鍾

加祚面場基里 加祚酒造組合

高梯面農山里酒造場 李洪雲

居昌邑 中央印刷所 電話十三番

居昌邑 三星堂樂器店 主 金昌壽

昌南金融組合

慶南居昌邑 三和洋品店 電話五八番

居昌邑 今井孝一

居昌金融組合

居昌邑 邑會議員 全景鉉

居昌邑 共榮商會 鄭鍾錫 電話三一番

居昌邑金川洞 永春堂藥房 成洛水

居昌邑 司法書士 吳鳳錫

居昌邑 愼鏞直

居昌邑 東亞婦人商會

居昌邑松亭里 紫崎重治

南下面武陵里 申鉉鍾

渭川面場基里酒造場 愼球晟

渭川面場基里 司法書士 姜始馨

渭川面事務所 職員一同

馬利面職員一同

高梯面職員一同

加北面牛惠里酒造場 朴常圭

加北面事務所 面長 全在明

神院面德山里 卞榮俟

神院面九十里 金丙俊

神院面渭水里 鄭泰燮

居昌砂防事業所 鄭杓

月川面 面長 康秉淳

北上 金達鎬

居昌邑北上面月星里 朴壽龍

居昌金融組合北上支所 韋大熙

北上面葛溪里 林葵熙

北上面月星里 吳宰根

熊陽面 李鉉廷

南上面茂村酒造場 吳宗贊

熊陽郵便所 所長 章鏞熙

熊陽酒造組合

加祚面場基里 醫生 成文台

月川面東[illegible] 姜元一

居昌邑 金敬七

居昌邑下洞 崔鉉鎬

居昌邑 [illegible]斗伯

南下面月谷里 崔丙[illegible]

渭川面場基里 黃敦[illegible]

馬利面大東里 姜禹[illegible]

北上面葛溪里 林基[illegible]

熊陽市場 劉炳[illegible]

主尙面道岬里 章[illegible]

高梯面農山里 朴欧緒酒造場

加北面海坪里 金昌來

居昌邑 司法書士 尹聖奉

居昌邑 鄭安植

居昌支局 顧問 朱愼南 支局長 崔昌瑞 記者 權[illegible]

慶州

慶州 中樞院參議 崔潤

迎日郡神光面牛角洞 李錫祀

慶州郡廳 同郡農會 職員一同

新羅古蹟遊覽バス及貸切自動車營業 慶州自動車株式會社 社長 川路吉太郎 專務 崔基潤

迎日郡竹長面長 李天雨

慶北安康 日浦廣治

迎日郡神光面牛角洞 李源稷

慶州郡江西面大洞里 金在晚

安康釀造株式會社

安康金融組合長 鄭柄璨

慶州邑路西里 慶州劵番 電話四四番

慶北慶州 慶州釀造株式會社 電話五二番

江東面長 李源英

慶州 聲海果樹園

杞溪酒造場 李殷雨

竹長面立岩金組理事 李洛珪

立岩酒造場 權大洛

江西警察官駐在所

迎日郡杞溪面大谷洞 M・S・Y・N

安康公立普通學校 安康公立尋常高等小學校

江西面長 黃修光

慶州郡江東面良洞 李錫海

朝鮮慶北安康 鄭鎭俱商店 振替釜山三四八三 電話二五番

慶州郡江東面 多山酒造場

慶北迎日郡立慶市 廣濟醫院 柳東洙

慶州安康 李錫平

慶北安康 慶安洋服店

慶北安康 朴長述

慶北安康 孫永基商店

慶北安康 主 權大石 安興商店

慶北安康市 綢緞布木 孫大實商店

慶州郡江西面安康里 朱學三

慶北安康市場 各種乾魚 優良果類 都散賣商 金在文

安康水利組合理事 栗本玉次郎

慶北安康 一慶州旅館 主 梁秀玉 電話一七番

安康市場通 尹副出自轉車店

慶北安康 綢緞布木 朴泰永商店

迎日郡杞溪面龍基洞 金悳默

江東面多山里 金道熙

迎日 李錫璣

慶州郡西面新坪里 尹瑾柱

慶北安康 李泊鍾

慶北安康 金七錫精米所

慶州郡良洞 S・Y・L・

大邱金田[illegible] 徐庭魯

慶州郡良洞 李錫坤

慶北安康 [illegible]

慶北安康 朴東植商店

慶北安康 李景和商店

杞溪市場通 金熙三

迎日郡竹長面立岩里 權俊興

慶州穀物商組合

慶州邑

慶州 飮食店組合

乾川產業組合 理事 孫甲祿

慶州郡西面乾川驛前 白瑢鎭

迎日郡杞溪面栗山洞 許澍寧

鏡城

咸北鏡城郡梧村面 南夕津漁業者一同 （無順）
姜興俊 張基萬 張進奎 全洸玧 全希俊 李升憲 張萬奎 張基鳳 申辰石 張恒吉 張錫允

生氣嶺鑛業所石炭特約販賣所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朝鮮咸鏡線生氣嶺驛前 諸般運搬業 物品供給 抗木 赤煉瓦 耐火煉瓦 ㊎丸全組 電話（鏡城）三三番 朱乙局私書函十二號 代表 石炭部 事務部 勞務部 金李權全趙金全 [illegible]

同咸北漁大津代理 同南恐山鎭 興南北 丸安店 丸全運送店 一心商會 白鶴商店 [illegible]

米穀貿易 食料品 洋品百貨 既製服 文房具 運動具 美術材料 [illegible] 咸北鏡城西門外 李相絲商店 主 李[illegible] 振替京城[illegible] 電話[illegible] 千代田火災保險株式會社代理店

濟東醫院 醫師 [illegible] 電話[illegible]

內科 小兒科 外科 一般 レントゲン科 鏡城醫院 院長 金[illegible] 電話[illegible]

鏡城郡廳員一同

鏡城第二普校 期成會 梧村面四個洞住民一同

咸北鏡城郡守 李贊郁

咸北鏡城灣 獨津漁港修築期成會

咸鏡北道會議員 金柄羲

朝鮮咸北鏡城西門外 大運苗圃

鏡城西門外 勝岩釀酒場 主 尹泳球

鏡城中央公立尋常小學校 校長 金日治 外職員一同

私立獨津學校 校長 朱辛衡 外職員一同

咸北鏡城北門通 萬年社自轉車部 主 吳基允

私立生氣嶺學校 校長 [illegible] 外職員一同

咸鏡線生氣嶺驛前 私立生氣嶺學校 設立者 尹[illegible]

咸北鏡城 成仁石

咸北鏡城東門外 果樹栽培 柳譽周農園

鏡城金融組合 理事 太田五郎

鏡城西門外 和洋雜貨 學生用品 各種菓子 崔時翕商店

鏡城城內 [illegible] 主 崔斗俊

鏡城北門通 和洋家具 土木材料 砂子土管 尹自文工務所

咸北鏡城新町 酒類和洋百貨 李旻鎬商店 電略（司）文八（リ）

咸北鏡城南門外 學生服專門 洋服店 主 金正昌

內田萬漁業部 電話一二番

獨津漁業組合 理事 [illegible]

咸北鏡城南門外 [illegible] 李[illegible]

北鮮種苗株式會社 [illegible] 黃丙倫

看東

東善醫院長 崔東鐥

黃州仁儀面長 徐廷學 外職員一同

中和郡看東 百貨商 東光商會 趙永達

看東郵便所長 鄭益煥

中和郡看東 宋南斗

中和郡看東市 崔崙釀造場

中和郡看東市 綢緞布木 雜貨石油 振興商會

看東消防組

看東面事務所 職員一同

看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立石

立石面事務所職員一同
立石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立石金融組合職員一同

安州郡立石市 穀物貿易 元興商會

安州郡立石市 穀物貿易 肥料賣買 平安商會 電略（ヰ）文八（イ）

安州郡立石市 穀物貿易業 玄米製造 山一商會 崔鳳俊 電略（ヤマ一）文八（ヤ）

安州面立石市 穀物貿易 三新商會 電話（三文八（ニシン））

安州郡立石市 金泉酒造場 [illegible]

安州郡立石市 順天醫院 元新溪公醫 金承文

安州郡立石市 立石醫院 京城醫學士 李三枝

安州郡立公面龍池里 龍池購買社 主 金璋河

安州郡立石市 有志 朴來燾

朝鮮日報社 立石支局 支局長 林春甲 記者 高漢奎

新春列國의外交政策

米佛과協力基調로 日獨伊擊破에注力

英國

【倫敦卅一日同盟特派員】大英帝國의宗家인 英本國은 對外的으로는 極東에 地中海에 또는西班牙에 東歐에 幾多의 國際的懸案을 부둥켜안고 鞭長不及馬腹之嘆을 하고 잇는바 國內的으로 稀有한 政治勢力의 安定과 現在가질수잇는 最良의 繁榮裡에 一九三八年을 맛게되엿다

爲先 政治的으로는 下院에서 與黨聯合派가 到底히 反對黨의 挑戰을 不許하는 壓倒的優勢를 確保하고잇슬뿐아니라 勞働黨은 甚히 人材缺乏에 懊惱하고잇다 勞働黨內에서는 勞働組合派와 인테리出身의 領袖와의 內訌이 尖銳化하야 그政治鬪爭力을 減殺하고잇는一方 다시 議會政治의 生命인 討議力에잇서 아토리ー黨首以下 모다 悲慘하리만치 無力을 暴露하얏다 特히 勞働黨은 政府의 弱點인 外交政策의 方面에 全然 人材가업서 스서로 討議를 要求하고도 恒常 惨敗를보고잇다。

他方 英國의 再軍備計劃은 着着進捗하야 國內에 豫想以上의 景氣를 招來하얏다 가장 悲慘하든 타인洞工業地域조차 戰艦二隻以下多數軍艦의 建造로 生色을 示하고잇는 形便으로 勞働黨이 如何히 外交失敗를 부르지저도 生活의 不安이 적기때문에 現實的 追力이업다 勞働黨은 이미 地方選擧에서 勝利를하고도 도리혀 政府가 總選擧를 한다는소리에 怯을 내고잇는形便이다

政府가 絕對優勢를 確保하면서도 아직 解散의소리가잇슴은 保守黨右翼內에 말도잇듯 反對黨에 何等 作戰的武器가 업는 機會를 利用하야 擧國內閣을 淸算, 一擧에 保守黨中心單一內閣을 確立하야 今後五個年의 政治的安定을 獲得하라는소리가잇기때문이다 그리고 單一內閣의 組織이 不可能하면 此際차ー칠을 航空相으로 入閣시키려는 運動이 最近旺盛하다그러나 下院唯一의 討議能力과縱橫의 才氣를가진 차ー칠이 入閣하면 그勢力은 곳 空海陸各軍은 勿論 全政府部內를 風靡할것은 必然하되어 保守黨內에도有力한 反對가잇다 또 체발린首相은 現今으로서는 擧國內閣의 維持에 何等 不便乃至不利를 感치안흠으로 健康이 繼續되는限 閣僚의 多少의 移動은 모르되 爲先現狀維持로 進行할 方針이라고볼것이다

그러면 그外交政策은 如何한가 체발린首相이 就任以來 彼獨自의 政策을 가지고 스스로 外交方面에 進出하야 이든外相은 無慘 그代行者에 不過하얏슴은 消息通의 널리 아는事實이다 그의外交政策의 特長은 重點을 全世界의 三大危險地帶即 日獨伊問題의 解決에 두는點으로 그어느二國과의協調를 實現하야 他一國에 當하려는것이다 最初는 日本과의 協調가 가장 可能하고 獨逸과는 不可能치안타는程度이고 伊太利와는 甚히困難하다는 見解下에 爲先日本과의 急速한接近을 企圖하얏섯다 爾來 支那事變이잇고 獨伊接近이잇스며 또西班牙問題의 展開等 外的條件에 顯著한 變化가 잇섯스나 今後도 어느나라가 장容易한나라부터 順次 協調를 實現하려는 根本方針에는 何等 變化가업고 單只 어느것이 容易한가가 問題가될것이다 現在에는 獨逸과의 接近이 比較的 容易한듯이보이는바 獨逸自身도 對英協調에는 積極的 熱心으로 어느意味로는 獨逸이야말로 歐洲外交의 主力을 두고잇다고까지 할수잇다

日本과의 協調는 支那問題가 가장 險惡化한 時期에는 伊太利보다도 一脈困難한듯이 보이나 英國이 如何히 蔣政權에 求理해이잇고 自國利權에 執着하지안는限 日本에對한 根本認識을 그릇하야 時局에잇서 冷靜한 大局觀을 失하리라고는 보이지안는다 勿論 香港만은 馬來半島와 濠洲에의 反響도잇서 最後의 後退線으로 死守하려하는 決意를 보이고잇다 伊太利는 今日도 強硬한 對英態度를 繼續하고 그러치안하도 地中海는最後까지 英帝國의危險線임을 否認치못할것은 周知하는바다。그리고 現在의 瞬間英國은 日伊兩國이 相呼應하야 英國의 右各個擊破政策에 當하려하지안는가하는 憂慮를 多分히 갓고잇서、此點이 今後의英國外交政策의 一關鍵을 形成할것이다。적어도 伊太利로서는 이를엿보고잇다고 觀測된다

이를 要컨대 英國政府의外交政策은 米佛兩國과의 基本的協力을 基礎로 右三危險點의擊破에全力을 傾倒할것으로 現在로서 그가장 脆弱한 點은獨逸로 그反獨傾向에 依하야 有名한차ー칠의入閣可能性이 적은理由도여기에잇는터이다 체발린外交의 이는外交의다는 機微은 各個擊破하기보다 자나리「說得」에 잇기때문이다 따다 이를 日獨伊三國側으로보면 英國에 說服되는것이 得策인가 或은 單獨乃至聯合으로 對抗하는것이得策인가 或은 可能한가에따라對英態度가 決定되리라고볼것이다

黃河를警備하는皇軍勇士

日獨伊樞軸으로 傳統的外交困難

佛國

【巴里同盟特派員三十一日發】二三의괴비린내나는 事件에 不拘하고 佛蘭西의 一九三七年은 當初 갓고잇든杞憂보다平穩히 지나갓다 數字的으로는이러타할것이업스나 貿易은 改善의길을것고잇고 暴落을거듭하든 法貨의 危機도 一時몰려갓든시對英百四十七法附近에 安定의形態를取하고잇다 支拂이危懼되든 對英鐵道借款도 期限대로 決濟되어 佛蘭西銀行에의 金還流가 百億法에 達하얏다 人民戰線은 縣會選擧로 一步後退를 示하얏다고는하나 아직强固한 鐵陣을維持하고 두려워하든 右翼의擡頭는 트리오의失脚트·라·록의挫折 特히 戰線不統一로 制覇는 아직遼遠한 觀이잇서 데모크라시는 依然鞏固한 地盤을 確保하고잇다 大陸에서 喪失되고잇는 佛蘭西의 權威云云의 말도 들리나그傳統的平和協調外交는 西班牙內亂의 世界戰化를 잘 防止하야多大한 貢獻을하얏다

그러나 一九三八年의 展望은 昨年元日의 展望보다 明朗하다고는 決코말할수업다 現在 此稿를 草하고잇는 巴里의 暗澹한 冬空下에 罷業은 全國化하려하야 食料市場은閉鎖되고 交通은停止하야 發展의 限界조차 알수업다 英、佛、체코슬로바키아、루ー매니아、蘇聯邦을 連結하는 一線은 델보外相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루ー매니아 一角으로부터 崩壞하려하야 델보外相의 巡禮를 文字그대로 省墓化하려하고잇다 ショータン內閣에 依하야强行된 勞働立法强化는 物價의暴騰으로 거이效果가 抹殺되여社會不安의 增大와 財政危機에拍車를 加하려하고잇다 봉네藏相의 赤字公債 大削減政策에 不拘하고 來年度歲入不足은 四百億法을 示하지안흘가 警戒되고잇다 如斯한 國內情勢에 加하야 日獨伊樞軸의 强化發展은 佛蘭西의 外交傳統인

一、獨逸에强大한 國家出現을防止

二、孤立을 回避하고 友邦을求하는 對外政策의 遂行을 益益困難케 하고잇다

著名한 評論家앙드레·모ー로아氏는말하되「佛蘭西의 傳統과 力은 一九三七年과如히 一九三八年도 顏色을 變치안코 團結에依하야 賦與된 戰略을 繼續할것이다」 果然右와如히 斷言할수잇슬지업슬지는 疑問일것이다

防共線에沿하야 三國同盟을强化

獨逸

【伯林同盟特派員三十一日發】一九三八年의 獨逸政府의外交策은 依然 防共의線에沿하야 日獨伊三國同盟의强化에邁進하리라고보인다 또는 英佛獨伊의 四國協調가 成立된다든가의 報道도잇스나 이는 英佛兩國이空想하는 歐洲政局의 布石이다 獨逸政府는 歐洲政局이 獨伊의防共樞軸과 他方 佛英의 聯蘇派로 判然 分裂되엇다고 보고잇슴으로 今後도 伯林羅馬樞軸의 强化에 努力하고 오리려 英國을 이에 連繫시키도록 努力을 繼續할것이다

獨逸政府의 對外要求의 中心은 亦是 植民地問題이다 이는 또國內的民衆動員에도 크게 效力이잇슬것이나 그實際的解決에는 今後 아직相當한 時日을 要할것이다

이에 反하야 中歐問題 即墺太利問題와 체코슬로바키아內獨逸人少數民族問題와의 二大懸案에 對하야서는 獨逸政府는 現實的으로 一步一步解決을 要求하리라고 豫想된다 特히伊太利政府와의間에 具體的折衝을開始하야 問題의有利한 展開에努力할에 틀림이업슬것이다 貿易關係에對하야서는 獨逸政府는 經濟復興四個年計劃遂行의 見地에서 諸外國과의 貿易調整을圖할 方針이므로 이意味에서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하야 東南歐洲에의進出이 注目된다

最後로 支那事變에 對하야서는 從來 目前의 利益에 拘泥하야 對日援助를 躊躇하고잇든 獨逸政府事務當局의 一部도 最近에는 東亞에잇서서 獨逸과 優先的으로 協力하려는 日本의 誠意를 確信하고잇고 他方 獨逸의 對支外交當局의 兩方面보다 蔣政權에對하야 갓고잇든 그릇된希望을버리고 南京、漢口政府를 容共的으로 確認하는同時에 右는 全然 中央政權으로서의 威令을 喪失하고잇다고 本國政府에 報告하얏다고 傳하므로 終始一貫日本支持의 히틀러總統、괴링空相의 大局論이 事務當局、經濟界間에도 徹底하야 獨逸政府의 事變에對한 日本支持의 態度는 明朗透徹積極化하리라고 期待된다

孤立狀態

蘇聯

【莫斯科卅一日同盟特派員發】蘇聯邦은 國內를再建하고 民衆을結束하는 手段으로 排外政策을採用한以來當然한歸結으로 對外關係는惡化의一路를것고잇다 英國과는 西班牙의不干涉問題로 對立되고 佛蘭西는 또 하게스키事件으로 단번에 氣分을 傷하야 蘇聯파를 리고 日獨伊防共協定으로는 相互援助條約의 同盟國인 체코슬로바키아 조차 델보佛外相의 프라하訪問後 急速히 對蘇關係가 惡化되엇다 蘇聯邦에對하야 緊密한 土耳其도 最近이란아프가니스탄、이락各政府와 四國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야 蘇聯에 對抗하고 波蘭과도 鐵道紛爭을 이르키어 形勢가 납부고 그우에 루마니아는 總選擧로 親蘇派가 總退却하야 現今蘇聯邦은 外交的으로 全然孤立危機에잇다 더구나 今年은 그孤立이더욱深刻化하리라고 보인다 危機에선 蘇聯外交를 左右하는者는 스타린을 除하고 누구누구하야도外務 리트비노프、內務이에조프、國防 와리시로프 의 三人民委員으로莫斯科에서는이를蘇聯守護의三天使라고부르고잇다 彼等은 蘇聯이 當面한 內外情勢를 知悉하고잇서 表面强硬한것과는反對로 現實로는 危殆한길을것지안는다

世界外交의 指導者인 英國은 蘇聯의 尨大한 陸軍을 크게보고 이에 極東牽制의 役割을하게하려하고잇스나 蘇聯이 外交第一線防禦의 姿勢를보이고 또 支那에도 援助의 人事를하고잇슴은 結局 單純한 제스추어에不過함은 이옥고 英國도알게될것이다 結局 크레믈린宮에서 考慮하고잇는 赤色外交의 難關打開策은

一、國際聯盟支持、集團的安全保障强化

一、西班牙抛棄、各國의人民戰線强化

一、支那의 第二西班牙化待望

쯤이고 唯一한 積極策으로서는 米國으로부터 輸入하야 內政安定에의 血路를 對米依存策에 두려는 案이잇스나 모두 國內가再建되기까지는 對外的으로 積極的行動을 避하고 靜觀의 立場을 직히는것이 蘇聯의 外交根本方針이다

聯盟脫退로 進路를暗示

伊國

【羅馬卅一日同盟特派員發】一九三八年의歐洲政局에約束된 一宿命은 英佛을盟主로하는 集團的平和保障主義와 獨伊를中心으로하는個別的平和保障主義와의抗爭일것이다 前者는國際聯盟을 根據로하고 倫敦을 舞臺로하는 世界現狀維持派이고 後者는 伯林羅馬樞軸上에 멀리 日本의 躍進勢力을 加한 世界現狀打破派의一國이다 이對立은西班牙에잇서서의 프랑코政權의勝利와 極東에잇서서의 日本의對支作戰의 驚異的進展과에 依하야 드듸어 表面化하야왓는바伊太利가 英斷的滿洲國承認과 聯盟脫退에 依하야 伯林、羅馬、東京樞軸의 强化에 決然蹶起한役割을 演한것은 英佛의 集團保障主義에 對한 絕對反對의 表明으로 이리하야 歐洲의 勢力均衡은 英佛의 讓步以外에 바랄수업는 狀態로 되엇다

이難局에際하야 英國은 植民地問題、西班牙地中海、極東等複多의 問題를 一手에 부둥켜쥐고 局面展開策에 苦慮하고잇는바 過般의 英佛會談과 如한도 結局 獨伊에對한 示威行動以外에는 何等의 成果도엇지못하얏다고解釋된다

此間에際하야 伊太利의態度는極히 率直且毅然한바가잇다 英佛蘇聯에對하야서는 西班牙問題、에디오피아問題가잇고 英國에對하야서는 地中海問題、東亞植民政策에伴한 紅海沿岸制覇問題가잇는바 그進路는 이미決定되어 一路不變이라고까지 보인다

即 聯盟脫退에依하야 示現된 決意는 今後伊太利의 進路를充分히 暗示하는것일것이다 元來歐洲政局의 複雜性은 伊太利政府에 多少의 安協도 不許할것으로 도리혀 孤獨이 嚴한 立場에 서는結果 躍進的諸政策을擁하고 意外의 困難에 進寄하리라고 생각되는바 最近유ー고슬라비아、루ー매니아等의 接近에 示現된 발칸政策의 成功과如히 뭇솔리니首相下에 그對外政策의 健全한 展開의 序幕으로 볼것으로 伊太利의 前途는 洋洋한바가잇다

朝鮮內紡績業 原棉輸入問題

朝鮮內紡績의 棉花輸入問題는 內地側의 根本方針이 決定되지 안햇슴으로 從하야 아즉 決定되지못하고 形勢傍觀이데 內地側의 決定如何에 依하야서는 지금까지 發達되어온 朝鮮紡績界에 一大衝擊을 與케되므로 殖產局도 事態를 重視하고잇는데 當局도 依하야서는 新春에 關係當局이 渡東할지도 모른는 모양이다

그리고 當局으로서는 朝鮮棉業만을생각하면 內地의 方針如何에不拘코朝鮮內의 必要한 棉花를 輸入하야 朝鮮內棉業의 發展에資하면 足하나 國際收支調整 非常時經濟體制整備의 見地로서하면 다만朝鮮內事情에만 補捉될을 不許하고 大勢에 順應하야 進하여야한다는 結果되어 苦境을 難免인 立場에잇는바 渡東하야 關係方面과 折衝한結果 內地側은 朝鮮도 考慮에너어對策을 講究키로되엇슴으로 內地一任으로 되어形勢를 靜觀코잇는터이다 그러나 朝鮮으로서는 內地側의 認識만에 依存할수업는 事情이잇서 朝鮮內棉花問題는 新春으로 넘어온 諸問題中의 重大한한가지로서 今後形勢가 注目된다

見よ！眞劍熱烈の大編輯！キングは面白い！面白い上に大感激!!

キング 二月號（六十錢）

熱狂！大歡呼！每號嵐の如き大賣行！

戰地でもキング！銃後でもキング！近時ますく讀者大激增！

萬人驚嘆！五大特輯

讀者慰安 大當り 特別大懸賞 高級優良時計附ラヂオ、新春向御婦人品、キングポータブル蓄音器、博多人形帶等 一萬餘人に大贈呈！

第一特輯 評判小說家 讀切り腕くらべ
▲元祿異聞 江戶の雪…邦枝完二
▲純情勝利 妹の淺黃服…竹田敏彥
▲仁義血淚 悲恋女仁義…山岡莊八
▲謎の犯罪 猿と死美人…橫溝正史
▲劍豪秘話 算盤劍術…湊邦三
見よ！人氣作家五大家の大競技、戀愛あり、探偵あり、股旅あり、武勇あり、義士あり、何れも傑作揃ひの大傑作、實に面白い！

第二特輯 立身出世繁榮大特輯
此の人を見よ!! この努力！この心掛け、眞に萬人處世、修養、奮闘の活模範!!
▲職工から一千萬圓の大社長（ナショナルランプの松下幸之助氏奮鬪傳）
▲苦學奮闘！二十五歲で博士（活動の呼び小僧から奮起した安井博士！）
▲病軀貧乏と闘って天晴れ審查員（美術界最高の名譽をかち得た雨宮治郎氏）
▲夫婦協力の話 有名な大商店主（血と淚と汗に彩られた野々村夫妻苦心談）

第三特輯 滑稽讀切り小說傑作集
恋の劇作家 佐々木邦作
喧嘩マニヤ 今井鯛三作
飴ん棒と恋 鹿島孝二作

第四特輯 壯烈！支那事變大特輯
キングの大特輯は、事變の事が一番よく分ると、號を追うて愈々大評判！
▲支那事變大畫報（第一輯より第三輯まで）
▲敵陣總崩れ！上海南京戰線壯烈実記
▲進擊又進擊！北支戰線壯烈実記
▲山西戰線從軍撮影行…梶入道
▲事變ニュース映画撮影の冒険座談會 戰地に轉戰三ケ月！之ぞ始めて語る血湧き肉躍る特ダネ大詳報!!

第五特輯 相撲大特輯
花形力士の出世ロマンス・結婚ロマンス・花形力士の美談感激談・美人が語る花形力士・褌かつぎの内幕話、男女の物識帖・人氣相撲得意の妙技大畫報等…玉錦、双葉山、武藏山、男女ノ川、鏡岩、清水川、玉の海、兩國、前田山、九州山、旭川、綾昇等を始めとして角界の人氣花形キングに登場！何人も見逃す勿れ

▲皇軍慰問面白大會 落語あり漫才あり漫談あり珍談あり浪花節あり…各界名家總出！面白い〳〵滅法に面白い
▲私は斯く思ふ…瀧正雄（企畫院總裁）
▲母の力…清水谷恭順（大正大學教授）
▲濠洲より歸りて…鶴見祐輔（衆議院議員）
▲時局漫畫と時局川柳 ▲人傑讚歌…吉井勇
▲愉快の王國 キング大娛樂園 ▲漫畫大レヴュー館
將棋新名人 木村義雄（筆者…菅谷北斗星） 棋界通菅谷氏が語る新名人傳！彼は如何にして今日を得たか？

武俠小說 浮名紅梅…川口松太郎 昔しから命をながらへ江戶へ向ふ青年劍客の前に、突如現れた謎の美人の正體は！
悲劇小說 日本の妻…竹田敏彥 夫を戰場で失つた明眸の佳人に苦難の日は續く！果然大問題となれる評判小說！
仇討小說 魔粧佛身…吉川英治 關所破りまでして尋ねる娘の心が心變り！熱血の勤王志士魚住十郎太は怒髮天を衝く！
股旅小說 駒下駄道中…原巖 男一匹虎太郎！侍と仁義の股旅故に、いとし女子と何時會へるやら、淋しくの旅の空
怪奇探偵 大暗室…江戶川亂步
大岡政談 本町小町…神田越山
男心女心 薔薇競技…細田民樹
武勇恋愛 乳房祭…小島政二郎
滑稽諷刺 青春オリムピック…中野實

待望の大傑作出づ 愛怨經…淺原六朗
あゝ儚ない運命と戀の冷い溫床に咲く涙の花！之ぞ現文壇人氣の中心たる淺原氏が、初心に還ってキングに發表せる傑作！一讀何人も感泣

◎定價六十錢 發行所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自身의"無學恥"로 二世敎育에 發憤!

餘生과殘財를한다발에여거 淸津末蔭校에바친姜仁伯翁

淸津城北! 北朝鮮景氣! 이것이 世人이 떠들어대는 黃金地帶다. 產業經濟界의 驚異的發展에 陶醉된 生涯는『푸로그람』없는 生涯를 謳歌하면서 文化니 敎育이니 도리혀바아니라는듯이 날뛰고 잇는편이다. 지금으로부터 일년전인 지난해 일야를 눈기피날리며 바람조차 몹시사나운 어느날저녁—淸津府水南洞에잇는 末蔭學校에서 한사람의『멧세지—』가 차저와 快報잇다는『特種』을 傳하므로 그말을 信憑하고 風雪을 무릅쓰면서 村家의 門을 두다리든일을 도리켜 生覺하면 이快報가 그대로 交涉이 업든 淸津社會에 自鳴鍾을 울리든 黃氏이 엿든가한다 悲運에 빠저 死線에 浮沈하든 末蔭學校(現水南學普通學校)를 私立普通學校로完成시킨것이 世人의 記憶에 사라지지안는 姜仁伯翁夫妻의 功績이엇다면 이感激에 醵成된雰圍氣가 곳文化淸津建設의 母體가되야 普通學校세개를 만드럿다.

姜仁伯翁

姜仁伯氏는 府內水南洞에 자라나서 六旬을넘도록 艱難辛苦에 남모르는 서러운生涯를 거듭하면서 營農에從事하야 피와땀으로蓄積한 資產을造成하얏다 中年에이르러 前妻를 死別하고 現夫人崔玉星女史와 結婚하게되자 家業은隆盛하야 相當한田畓을작만하엿슨바 近年의有名한土地景氣에 異數의 好評價를맛게되야 十數萬圓의 財產家가된분이다

氏는 어려서부터 環境에 礙하야 學問의恩澤을받지못하고 無學의 恥辱을늣긴것이 恒常胸中에 痛心과 義憤心을 찌내게되얏스니『비록나는 無識하지만 後生들이나 나가는

羞

恥辱을免해야한다』는 氣槪를 가지고 나와젓다 距今七八年前同里에 創立된 和光學校(末蔭校前身)의 創立者의 한사람이된 以後는 同校의校長으로서 넉넉잔흔生活의 學校의運命과 同苦同樂하야 오다가 昨年봄 三月에 夫妻가 合計二萬二千圓의土地를 同校에 寄附한것이다 翁은 餘生과餘財를 全部敎育事業에 投하려한다고 言明하고 同校의 發展助長을爲하야서는如何한 辛苦라도 甘受하겟다한다

무姜氏는 氣魄이快活하고 膽力이巨大하야 所信에邁進하야吝嗇한행동을 보이지안는 豪傑風의 所行者로 그餘財가敎育界에 흘러저나올可能性도 氏의天稟에期待하는 所致다

水

南普校는 新築校舍의完成을기다려 昨年晩秋에 私立普校로昇格되고 同校는 十萬圓에近한 財團우에安置되고 마랏스니 그前途는 實로洋洋한바잇서 初等學校로서의 滿足은 업는터이다 姜仁伯翁의 盛擧가잇는다음 淸津社會에는 枯草에春風이 차저오듯으로 上下各界가 蹶動하기 始作하얏다

姜氏宗中盛事

敎育協會가 創立되야 敎育淸津의 建設을 부르짓고 姜翁의 讚頌會가 열리고 이어서 第二次로 姜氏宗中의 讚頌會가 열렷스니 姜氏宗中의 盛事란 무엇인가? 姜台璜氏를 中心으로한 姜氏의 一門은 그宗中財產인 墓地를 不運의

靜

山校에 提供하야 同校의 經營一切를 繼受한것이다 이 아름다운 勤勞와 行爲에 世人은 얼마나 感激하얏스며 他界의 神靈들은 얼마나 後孫들의 壯擧에 微笑하고 滿足을늣겻스리라! 따라서 姜氏宗中의名譽란 얼마나 世上에 宣揚되얏슴이랴! 宗中財產이란 다툼이아니라 門中의 墓地를 處分하는데 處分方法을 考究하던끄테 或者는 公共事業에 投하자고 主張하고 或者는 代償을 均等하게 分配하자는等 區區한 利害打算이 나와다는바 그中에엇던이 先祖의 墓地를 賣却하야 分食한다는 行爲는 先祖의 餘德을 分取한다는것이 아닌가 分錢이라도 우리는 分配치말고 全部를모다서 敎育事業에 썻스면 이얼마나 意義기픈 事라』이切切한 言辭에 會同한 宗中諸氏도 同意하고 마랏스니 이것이

價

格으로 三萬餘圓이요 그外에 現金若干과 土地등이 마를合처大萬圓에 가까운 財產이 門中으로부터 흘러나오고 靜山學校는 前經營者인 鏡城親睦會의 손에서 繼承되고 二通의契約書가 當事者間에 交付되얏다 昨年晩春에 本報支局主催의文化淸津座談會에서 同內容의 一部가 公表된以來 姜氏宗中의擧는 만흔感激과 讚揚裡에입에서 귀로 귀에서입에로 傳播되얏스나時勢不利의 탓으로一時 그計劃의遂行이 遲延되고 잇는것이多少遺憾스러운바이나 不遠에實行을기다려 靜山校도 水南校에지지안는 完全한것으로 나타날것으로 一般은 同校長姜台璜氏以下諸氏活動에 期待하고 잇다

過去二年間의 내고장敎育恩人푸로필

增加된民事訴訟에 離婚이絕對多數

昨年中新義州法院集計

【新義州】 지난십이월이십팔일로써 각판공청은 일제히 사무를 끗내이엿는데 작년도중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수리한 민형사(民刑)사건은 민사합의(民事合議)이백삼십이건, 단독(單獨)오백삼십칠건, 합의항고구건(件)이고 형사합의(刑事合議)일백이십사건 단독(單獨)일천칠백륙십팔건 합계일천팔백구십이건으로 민사합의는 재작년의 일백구십사건에 비하야 삼십팔건의 증가라한다 그리고 미제조월은 삼십륙건으로 재작년사십사건에비하야 도리혀 적어진셈이다 그리고민사합의 이백이십이건중 리호사건이 칠십팔건이라한다

咸南道에서도 離婚訴訟激增

【咸興】 시국의 불안은 각가정에도 영향되인지 작년일년동안 함흥법원 관내에는 리혼소송이 격증하고 잇다 법원 민사부의 접수게를 엿보면 작년도에 접수한리혼소송은 팔십이건의 다수가되며 위자료(慰藉料) 청구소송도 십오건이나 된다 이것을 재작년도의 륙십이건과 비하면 이십이건의 격증을뵈우고잇는데 녀자가 남자를상대로 제소한것도 적반이나된다

고무靴統制를爲하야 고무同業會創立

元山卸賣商들協議로

【元山】 강원도 북만등지에뻐처 년이백만족이상의 판매고를보이는 원산의고무화 도매상들은 지난삼일오후네시반부터 시내해동현에 회합하야 원산고무동업회(元山護謨同業會)를 창립하고 고무화의 판로확장급 그판매통제와 및 그취인방법의 개선에대하야 종종협의하고 동팔시경에 산회하엿다는데 당일 토의사항과 선임임원은 다음과갓다 이 고무화사매상(卸商)들의 동업회조직으로 말미암아 원산상권내에잇는 고무화소매상과 일반소비자에게 미치는영향도 적지안흐리라한다

▲討議事項 一、販賣價格統制의件 一、在來取引方法改善에關한件 一、取引期日短縮의件 一、其他

▲新任任員 會長朴京默 總務浦東浩 康協 金容燦 會計金鍾均

虛僞強盜

【平壤】 평양부외오촌리(梧村里)리용순(李用淳)(?)은

이날오후 여덟시십분경부내 경상리(慶上里)리한영(李漢英)(二七)은 부내 신창리(新倉里)도로를 거러가든중 어떠한 양복괴한한명이 나타나서 나는평양서 형사인데 신체검사를 한다하여 추운겨울밤에 이십분이상이나 신체검사를 당햇스나 아모것도 가진것이업서 그대로돌리어보내고 다시그곳을 지나든 부내기림리(箕林里)한근창(韓根昌)이란사람을 불러세우고 신체검사를하려햇스나 태도가수상하므로 사람의왕래가 빈번한이곳에서 신체검사를 하는것보다는 파출소에가서 하자고 이야기하자 이괴한은 다라나기시작하는것을 평양서원이 추적체포햇다 이괴한은 일정한 주소가업는 김은옥(金銀玉)(二?)으로 류치장에 집어너코 방금 문초중이다

三豐夜學盛況

【慈城】 자성군삼풍면대류포(慈城郡三豐面大柳浦)에서는 동절의 농한기를리용하야 동네유지의 발기로 지난십이월일일부터 당지호찬성(胡贊成)씨의 집에서 야학회를열고 이에요하는 경비는동중유지의 희사금으로 충당하고 현재야학생이 이십여명에 달하야 북국한설로 치운밤에도 매야성황을 일운다는데 역원과 과목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役員 會長 胡贊成 敎師 胡炳禧 金昌雲 嚴炳爀 顧問 楊禮俊

◇科目 國語 한글 算術

新春마진鎭南浦에 二萬噸貨物輻輳

十六日까자出入決定된것만

【鎭南浦】 무역고이엇던이번을 롤파하고잇는 무연노시 진남포항은 신춘을마지하면서 일층더진상을 보이고잇다 오는십륙일까지 진남포항에는 아래와가티약이만노의 화물이출하 혹은입항하게되리라고해서 신춘벽두진남포부두는 일대호황을 일우고잇다

▲二日出港 隆東丸(米四千噸)雲海丸(米千噸)

▲三日出港海丸(穀物落花生等千五百噸)

▲三日入港第十八共同丸(洋紙、金千代等百噸)第五鮮友丸(米五百噸)

▲十二日入港大新丸(米一五〇〇噸)京隆丸(雜三百噸)

▲十二日入港神津丸(米一六〇〇噸)

▲十六日入港漢城丸(米八五〇噸)

中和街道의强盜犯 首魁等三名就縛

船橋署의新年所得

【平壤】 작년십일월십사일 중화가도(中和街道)를橫行하든 대동군남곳면(大同郡南串面)에 사는 이명국(異明國)(三?)을 首魁하고 자전거를타고 란타하여 사경에빠지게해노코 현금오원이십전을 강탈도주한 륙인조강도단의 행방을 선교서에서엄탐중 삼일아침 그수괴 김룡운(金龍雲)(?)외두명은 체포되여 방금준엄한 취조를받고잇다

新春에假刑事

平壤署員이逮捕

【平壤】 신년벽두삼일 평양거리에는 가짜형사가 출몰하여행인을괴롭게하는사건이 빈발하여경찰을 긴장케햇다

素砂公普新築

【素砂】 경인선소사역전에 잇는 소사공립보통학교의 학급증설과 교사확장의 신축공사는 작년팔월초순부터 공사중이든바 드듸여지나간 연말에 준공을 보게되여 학교당국에서는 삼학기의 수업시작을 신교사에서할 예정으로 방금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平南에煙草豊作

賠償金額이一百三十餘萬圓!

信川地方試作도好績

【平壤】 평양지방전매국 관내의 작년엽연초(葉煙草)경작 면적은삼천팔백구정오단으로 수확예상고는 오백구십구만칠백륙키로인데 이배상금은 이백삼십삼만 사천사백오십사원으로 면적은 전년보다 훨부、배상금액은 이할오부의증가이다 엽연초 경작인원은 이만이천여인으로 배상금액으로 적지안은경제적 윤택을보게될 것인데 엽연초의 수납사무는 십이월중순에 시작하여 십이월말에 일회、일월말에 이회로난호아 완납하게된다 평양지방전매국에서는 황해도신천(信川)에 미국종(米國種)연초의시작을 한결과 단당사십이원여의 수확이잇슨것이 판명되여 아곳보다더욱장려하기로되엿다

最初의煙草耕作 咸南서도好成績

反當平均四十一圓餘

【咸興】 함남도에서 금년도에처음재배한 연초(煙草)의 수납은 지난이십일까지 꼿마첫는데 그경작성적은 극히조와서 배상금(賠償金)도 일만삼천륙백오십삼원이나된다 그리하야반당수로 평균사십일원팔십삼전이나된다 명년도에는 다시그재배면적을 대확장할계획이라고한다

大邱在住支那人 新政權에參加

【大邱】 남경함락에뒤이어 북지에신정권이 수립되자 전조선각지에 산재하여잇는 중국인들은 경성총령사를 비롯하야 속속장저권을리탈하고 신정권지지를선언하여오는중으로 대구에 잇는 중국인의동정은 자못 주목되여오든바 지난이일이래 부내경성명하엿다한다

大田의支那人들도 新政權參加를表明

【大田】 대전부내(大田府內)에잔류지나인 삼십오명은 지난칠일오후세시부터 당지덕흥루에모혀 협의한결과 북지신정권에참가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결의문과및선언문을 각소에 발송하고 대표자는 추남경찰부장과대전서장을 방문금후의 태도를설명하엿다한다

中篇小說 女人命令【14】

李善熙 作 崔根培 畵

別離 (七)

그리고 또한가지 이상한것은 유원이가 이러케 다니면서부터 언제나 열한시—밤열한시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가지는것이다.

밤열한시만되면 그의눈의 동자가 더커지는것갓고 얼골의근육은 팽팽하게 긴장이되는것갓고 그리고 그행낭방 길로향한 벽에 뚤린 적으드름창으로 수업시내다보는것이다.

이러케 수업시 내다보다가그의 눈이어둠가운대서 무엇을발견햇든지 그때는 행길로나가는것이다.

이러할때면 그는 의례히 숙채를 그때가 이르기전에 몬저하숙으로 돌려보내노코、그리고 가타잇는 동연어머니나 동연아버지에게도 어떠케를 만들어서든지 그자리를 피하게한다.

두사람은 그랏고물이 짜다는 떡을 엄청이먹고나니 냉수한사발을 서로도다먹엇다.

『지금몟시나 되엿서요?』

숙채는 자기의 손목시게도잇건만 어쩌지 그것은 보지안코 핸드빽속에드러잇는 유원의 시게를 끄냇다.

금사슬을 수르르 달고나온시게 뚝경을 열고보니 꼭아홉시다.

『아홉시예요』

『네—그럼 그동안 우리산보나할가요?』

두사람은 문아풀나서서 어둡고 긴—골목을나와 다시 전차경류장에까지 이르럿슬때 어대로 갈지몰라잠시머뭇거렷다.

『어대로 갈가요?』

『어되든지。동그런 창(窓)이만흔 거리로 가십시다』

두사람은 우섯다.

『동그런창잇는거리——』

『그럼 동그런창잇는 거리로가십시다』

겨울이 지나고 아직 봄이이르기전——밤이 무척유순한데바람은 비단볼두리처럼 목에 사붓이 감겨든다。

『조흔밤이지요?』

유원의말은 극히 만족햇다。

『네—조흔밤입니다。』

『밤은 한개의 예술이오 또모든 예술은 밤에나허지죠。』

유원이는 숙채의 말에 잠자코 우섯다。

두사람의말은 서울거리에 익숙한지라 아모도록이나 드러갓고아모 모통이라도 돌아서 밤거리를 거럿다。

그러다가 그들이 전거장 근처에 이르럿슬때 문득 어느조고만『오뎅』집 유리창 넘어로 삶은계란을 수북이 가리어노코우에 소금을 솔솔뿌리여 노흔것이보혓다。

『우리 이집에 드러가서 잠간쉬여가시까? 아모도 업군요』

『이게 술집이 아나요?』

『웨 안돼서요? 제가 잇는데판찬조。드러가십시다。』

두사람은 문아페『오뎅』이라고 써부친 허겁자락을 처들고 안으로 씩—드러섯다。

마침 객은하나도 업고 늙수구레한 오까미상이 오뎅가마며 냄비를 의에안저 끄덕 끄덕조을다가 문여는 소리에 깜짝놀라 일어서 부러은『이랏샤이마세』를 재바르게 내여놋는다

두사람은 다른객이 업는것이 다행해서 꺼머케 때가 안즌 소나무 테불을 가운데두고 마조 안젓다。

『오늘밤은 이국(異國)의 거리를 거르면서 서투른 풍경을 보는것갓해서 마음이 이상하군요。무슨 새로운 경이(驚異)가 오는것가터요』

『조흡니다。숙채씨 워낙 꿈이만흐시니까요。그러나한삼십분이나、무적에 익숙해지고 그대신또다른세상이 서툴러질겁니다』

두사람이 이런이야기를 주고밧는데 오까미상은 쓰여차쭉사기자스중 두개에다 따리노코무슨음식을 청하시느냐고 손짓을 작작 부비며 뭇는다。

『난 오늘저녁에 술을 좀먹엇스면 조켓는데 허락하십니까』

『네 조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댓바람나를잡어다초달을 치실꺼예요!。숙채씨는』

『체—아버지는 머 술을 안잡수신다구…』

『그럼 내가 몃잔 이러케 먹엇다고해도 용서하시까요 만일 책망을 듯게되거든 그땐숙채씨가 변명해주서야합니다』

숙채는 손목지 두개를 집어서 하나를 유원에게주고 하나는 자기가 조히를 벗기엿다。

이리하는동안 주문한 음식이 오는데 우동한그릇과 오뎅한접시는 유원의아래 바다노핫다。

『삶는계란을 조와하신단 말을 전에 어머님께 들엇는데…생각이게시면……』

숙채는 그큰눈에 우슴을 담아가지고 유원이를 처다봣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먹겟다는 뜻을 표햇다。

유원이가 오까미상의게 삶은 닭알을 잇는대로 가저오라고하는것을 숙채가 말려서 스무개만 가저오라고햇다。

謹賀新年

戊寅 元旦

晉州

晉州實業春秋會

晉州 朝鮮酒酒造組合

晉州邑 株式會社 廣信商會

晉州 金琪部

晉州邑水谷面元內里 成煥龜

晉州邑水晶町 河萬濮

晉州邑東鳳町 鄭相珍

晉州郡平居面 鄭泰奭

晉州郡井村面禮下里 姜渭秀

綢緞布木日用雜貨 ミシン機附屬品一切 最新流行洋服調進 金谷洋服店 主 金容湝 慶南晉州郡金谷市場

慶南晉州邑南山町 晉州礦泉社 電話三四〇番

晉州郡平居面 崔應濟

晉州邑 義谷寺

晉州邑榮町 共濟醫院 金洋奎

慶南晉州邑榮町六七 金銀細工 正金堂 電話二七番

晉州邑本町 李章喜

水曜會

晉州釀造合資會社
晉州酒造株式會社
晉陽酒造株式會社
嶺南藥酒製造株式會社

晉州郡水谷面 河泳珍

慶南晉州邑榮町三三六 金奉圭 電話二五七番

晉州邑榮町 元準玉 電話一〇一番

晉州邑蓬萊町 徐相弼 電話四二九番

晉州邑西鳳町 鄭台範

晉州妓生券番 電話四二五〇番 四二一番

晉州邑幸町 カフエー オリムピック

晉州邑東鳳町 土木建築請負 丸趙工務所 主 趙禧奎

晉州邑幸町 朴相郿

晉州邑蓬萊町 金仁大

晉州邑錦町 鄭鎬德

晉州郡道洞面長在里 金斗弘

晉州郡大谷面丹牧里 河萬鎬

晉州郡班城面驛前 勝山自動車株式會社

晉州郡班城驛前 綾光興業社

晉州郡一班城面 韓禹源

晉州郡班城郵便所 朴永煥

晉州邑長 山下正道

晉州郡農會

晉州郡 平居面事務所

晉州郡 集賢面事務所

晉州榮町 株式會社 姜汶鉉商店 電話一七三番

晉州本町 朝鮮料理 建興館 電話二六六番

晉州劇場 電話三三三番

晉州邑本町 許治九

晉州邑南山町 鄭杓煥

晉州邑西鳳町 朴奎錫

晉州郡大坪面上村里 朴祥晉

晉州邑榮町 鄭大和

晉州邑蓬萊町 李萬雨

晉州邑東鳳町 家屋建築請負一切請負業 永保建築工業社 主 姜枓淳

晉州邑 清水合資會社

晉州郡 井村面長 吳純根

晉州邑蓬萊町一九九 朴台源

晉州公立學校長會

晉州邑榮町 辯護士 崔斗煥 電話四七番

晉州邑昭和町三三 趙萬濟

晉州邑明治町 尹炳用

海陸物產委託販賣商 朴起用商店 電話三三三番

晉州邑日出町六九 姜學同

晉州郡井村面開陽驛前 朴錫鉉

晉州郡井村面 秋基洪

文山金融組合 金吾支所

晉州幸町 甲乙洋靴店 主 權台熙

晉州錦町 趙琪洪醫院 電話一四八番

晉州邑東鳳町八四番地 支那料理 群賢館 電話二〇九番

晉州郡大坪面 金在圭

金谷面竹谷里 金孟瀚

晉州邑蓬萊町 李炳冕

晉州郡谷洞面 金溶珍

晉州郡大谷面丹牧里 河萬里

晉州邑 正陽堂乾材藥舖

晉州邑榮町 全永澤

晉州邑市場通 三星商會 主 姜炳熙 電話二六七番

晉州邑東鳳町 鳳山藥院 主 崔明鎬 電話四二三番

晉州邑日出町 洋服附屬品 文化洋行 主 沈在潤

晉州邑市場通 孔泰鶴眞油工場 電話三四八番

晉州邑榮町 愛一商會 金潤明

晉州邑錦町 晉陽商店 主 卞學用

慶南晉州邑東鳳町 河合商店 主 河仲洛

晉州邑錦町 二和商會 主 尹尙和

慶南晉州 水晶商會 電話二〇七番

報恩

報恩邑內 報恩郡繁榮會

報恩邑內 合商店 主 李錫來

報恩邑內 鄭壽弘

報恩金融組合 理事 島居淏

報恩郡三升面元南里 權寧武

報恩郡馬老面官基里 金丁鎬

報恩郡報恩面事務所 職員一同

報恩金融組合 職員一同

報恩金融組合 吉村一郎

靑山金融組合官基支所 宋在龍 鄭海桃 鄭智澤

報恩邑內 朝鮮料理 樂天館

報恩邑內 孫義植

報恩邑內 李龍濟

報恩邑內 辛建鼎

報恩邑內 郭鍾元

報恩邑內 金在洙

報恩郡報恩面三山里 李昌濟

報恩郡山外面九也里 山外面職員一同

報恩邑內 金和旅館

綢緞布木 永興商店 主 張道成

穀物貿易 朝鮮忠北報恩邑內 大同精米所 電話(タ)又ハ(タイト)番

忠淸北道報恩郡報恩面三山里一〇一番地ノ七 忠北トラック運輸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錫來 專務取締役 池田榮次郎

報恩郡俗離面舍乃里 金熙日

報恩郡炭金面高升里 任昇宰

報恩郡三升面元南里 朴熙

咸興

咸興永生高等普通學校